



▲ 11월 2일, 한국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불학회는 서울의 최대 중국인 거주지인 구로동과 대림동 일대에서 대규모 퍼레이드를 개최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283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435만 7197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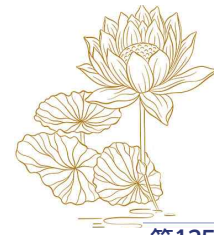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53期(2025.11.14) WWW.MINGHUI.ORG

한글판 1017호 minghui.or.kr



▲ 명혜망 제22회 중국 법회가 11월 9일 개막했으며,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내용

【중국법회】 법을 외우면서 착실한 수련을 배우다

【중국법회】 중앙 국유기업 체제 내에서 동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다

【중국법회】 진상을 직접 대면해 알리며 체득한 수련의 깨달음

【중국법회】 정법수련을 명석하게 인식해 신(神)의 면모를 드러내자

【중국법회】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목 차〉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3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9

■ 수련교류

시련 속에서 자신을 수련하다 13

수련생과 함께 정진하는 것은 나의 책임 15

■ 중국법회

법을 외우면서 착실한 수련을 배우다 20

중앙 국유기업 체제 내에서 동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다 · 27

진상을 직접 대면해 알리며 체득한 수련의 깨달음 36

정법수련을 명석하게 인식해 신(神)의 면모를 드러내자 45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상) 59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 77

【편집자 주】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자신에게 아직 제거해야 할 많은 사람마음과 집착, 공산당 당(黨)문화 요소가 있음을 압니다. 또한 발정념을 강화해 제때 자신의 문제를 제거해서 사부님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이 정법(正法)에 대해 죄를 지을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제자는 반드시 사부님을 바짝 따르며,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사명을 완수하고, 사부님을 도와 법을 바로잡고 중생을 구하며, 사부님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대법 표준에 부합하는 대법제자가 되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여러 해 전 어느 날, 저는 진상을 알리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없었고 배가 아팠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니 혈변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피곤할 리가 없지. 대법을 수련하는데 피곤한 것을 두려워하겠어? 피곤할 리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버텼습니다. 밤이 되자 피를 쏟아냈습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화장실로 갔고, 피를 쏟아냈는데, 마치 아이를 낳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누울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발정념하며 사람을 구하는 것을 교란하는 사악을 제거했습니다. 새벽 4, 5시가 되자 침대에 겨우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괜찮아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제가 그에게 말하니, 남편은 제가 병원에 갈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제가 암에 걸린 줄 알고 걱정하며 크게 울었습니다. 제 여동생도 울었습니다. 딸이 “엄마, 병원 가요. 엄마, 우리 둘 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엄마가 잘못되면 어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 날 건드리려면 먼저 돈부터 내놔”라고 말했습니다. 치료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집에는 돈이 없었으니 그들은 그만졌습니다. 제 딸은 이웃에게 저를 지켜보며 제 상태를 관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업 문제에 있어 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수련인에게는 병이 없다고 하셨으니, 병이 없는 것이고 신체를 정화해주시는 것이다.’ 저는 일부러 더 격렬하게 집안일을 하며 병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딸이 이웃에게 물어보자 이웃은 “네 엄마 괜찮던데? 일도 아주 잘

■ 해외 종합 ■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11월 9일, 파룬궁수련자들이 다시 한번 초청받아 미국 샌프란시스코 재향군인의 날 퍼레이드(Veterans' Day Parade)에 참가했고, 주최 측과 관중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파룬궁수련자들의 대열은 미 서부 천국악단과 연공팀으로 구성됐다. 천국악단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와 ‘미국 국가’ 등 여러 곡을 연주해 관중들의 환영을 받았다. 파룬궁수련자들의 공법 시연은 관중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했다. 전 부대 지휘관 스티브 돌긴(Steve Dolgin)은 파룬궁수련자들의 대열을 지나며 엄지를 치켜세우며 말했다. “우리 세상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어디서나 진선인이 필요합니다.” 파룬궁 대열이 본부석 앞을 지날 때 사회자는 관중들에게 이렇게 소개했다. “지금 본부석 앞을 지나가고 있는 행렬은 파룬궁수련자들의 대열입니다. 전 세계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파룬궁은 심신을 함께 닦는 수련법이며, 파룬궁수련자들이 밝고 선명한 노란색 연공복을 입고 우아하게 동공(動功)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11월 1일, 캐나다의 오타와 파룬궁수련자들이 ‘세계 다문화 축제’에 초청받아 파룬궁을 소개하고 다섯 가지 공법을 시연해 여러 민족 시민의 환영을 받았다. 오타와 파룬궁 대표 신치화(忻琪華)는 “저희는 2022년부터 4년 연속으로 이 연례행사에 참여해 공법을 시연하고 진선인 이념을 홍보하며, 주최 측과 시민들의 찬사

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세계 다문화 축제 협조인 지프시 고시(Gipsy Ghosh)는 인도 출신 교육가, 기업가이자 문화 추진자로, 캐나다 다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녀는 “파룬궁수련자들은 오랫동안 저희 행사를 지지해 왔으며, 명상 가부좌, 건강 및 복지를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가부좌가 오늘날의 세계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파룬궁은 수련 단체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정신적 단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저는 그들이 이 부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파룬궁을 알리기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파룬궁수련자들은 **멕시코**의 바하 칼리포르니아 지역 티후아나(Tijuana)에서 일련의 활동을 개최해 현지 주민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라는 이 심신수련 공법을 소개했다. 그들은 시내 여러 중요 장소를 방문해 시민에게 파룬따파 수련의 이로움을 알리고 중국공산당(중공)이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시민이 파룬따파를 알아보러 왔고 연공장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현지 주민 하비에르(Javier)는 둘째 날 오전에 공법을 배웠다. 이후 그는 감사함과 기쁨을 표현하며 “(연공이 가져다준) 건강상의 이로움을 깊이 느꼈고 온몸이 상서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마치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Santo Domingo)의 프라사 데 라 쿨투라(Plaza de la Cultura)에서 제27회 산토도밍고 국제도서전이 개최됐다. 7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왔다. 도미니카공화국 파룬따파 학회 또한 행사에 참가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관람객들에게 ‘진선인’의

저는 잠시 걷다가 보니 그들이 여전히 저를 따라오고 있었는데, 꽤 멀리까지 따라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 건 옳지 않아, 나는 그들을 더 구해야 해.’

저는 되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내가 당신들 모두 탈당을 시켜줬으니 구원받은 생명이예요. 돌아가면 당신들 셋이서 이 USB를 번갈아 보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정말로 구원받는 거예요. 장래에 사람을 도태시키는 큰 재난이 닥칠 때 당신들은 무사할 거예요. 당신들이 만약 이렇게 나를 따라온다면 당신들은 여전히 진상을 모르는 것이고, 여전히 나를 건드리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건드리면 당신들은 하늘에 닿을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 구하는 것을 방해하면 이 결과를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젊은이? 당신들이 평안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목적이예요. 나를 따라오면 안 돼요. 가보세요. 아주머니는 당신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길 바라요.” 그들은 이번에는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친오빠, 남동생, 여동생처럼 부르며 “안녕하세요. 좋은 일 알려드릴게요”라고 한 다음 진상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은 경찰이 바로 앞까지 왔지만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은 파출소와 구치소로 납치됐지만 제가 정념 정행하니 사부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서른 번 넘게 경찰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상 깊은 일들입니다. 20여 년, 너무 긴 시간이라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는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오직 법으로 자신을 요구하며 사부님의 보호하에 걸어왔습니다.

5. 정념으로 병업 가상(假相)을 넘다

요. 얼른 좀 깨달아 봐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해도 그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왔습니다. 저는 USB를 들고 경찰을 향해 다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설날에 귀찮게 해드렸네요. 설날에 오셨는데 그냥 오실 순 없죠. 저는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든 구해야 해요. 경찰은 더욱 구해야 하고요. 경찰은 더욱 구원받아야 할 생명이에요. 사악한 당이 바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더러 대법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 USB가 바로 목숨을 구하는 천기니, 드릴 테니 가져가서 보세요.” 책임자로 보이는 경찰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 탈퇴를 권유했고 그는 탈퇴했습니다. 경찰은 모두 세 명이 왔습니다. 다른 경찰 한 명은 듣지 않았고, 또 다른 한 명에게 말하니 그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며 그 두 사람에게 계속 말했고 결국 모두 탈퇴시켰습니다.

그 군인 청년은 가지 않고 그곳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했어도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이 진상을 모르기 때문이죠. 나도 당신이 평안하길 바라요.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다시 말할 때, 당신은 반드시 당, 단, 대를 탈퇴하고, ‘파룬따파하오’를 기억해야 해요. 그럼 장래에 재난이 닥칠 때 당신은 평안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대법은 바로 불법(佛法)이에요.” 그가 가지 않으면 이 일이 해결될 수 없었기에 경찰이 그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고 난 후 경찰이 저에게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위해 기뻐요. 당신들 모두 구원받았으니, 나도 오늘 헛되이 나온 게 아니네요”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들이 차를 타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잘 가라고 했습니다.

원칙을 소개하고, 파룬따파의 주요 저작인 《전법륜(轉法輪)》을 비롯해 관련 서적과 자료들을 전시했다. 수련자들은 관람객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하고, 파룬따파가 사람들의 심신에 가져다주는 이로움에 대해 소개했다. “《전법륜》 책의 선명한 파란색 표지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이 책이야말로 제가 늘 찾고 있던 책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저 이 책을 바라보고 손으로 만졌을 뿐인데, 뭔가 특별한 연결이 느껴졌어요”라고 루시아(Lucía)라는 이름의 한 젊은 여성은 말했다.

전시 참가 활동의 일환으로, 수련자들은 도서전 기간 여러 차례 행사를 열어 다양한 장소에서 대중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했다. 특히 올해에는 ‘파룬따파와 일상생활: 심신 수련’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도서전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수련자들은 도미니카 영화자료관에서 루드밀라 오리올(Ludmila Oriol) 감독의 단편영화 《연꽃 이야기(The Lotus Flower Story)》를 상영했다. 이 행사는 도서전 주최 측의 초청에 따라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프로그램이었다. 영화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진선인의 핵심 가치를 부드럽고 생생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10월 29일, 영국 국교회 요크 대주교(The Archbishop of York) 사무실의 일레인 해리스(Elaine Harris)는 스티븐 코트렐(Stephen Cottrell) 대주교를 대신해 영국 파룬따파학회에 서한을 보냈다. 그녀는 서한에서 “요크 대주교는 9월 15일자 서한에 매우 감사하며, 저에게 그를 대신해 회신하라고 요청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중공의 생체장기 적출에 관해 해리스는 이메일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영국 국교회(The Church of England)는 클루어 이니셔티브(The Clewer Initiative)와의 협력을 통해 강

제 장기적출은—어디서 발생하든—현대 노예 제도의 한 형태이며 불법이자 비도덕적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상원 주교들은 국내 외를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현대 노예 행위를 타파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충분히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입법 강화를 적극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영국의 기업과 개인이 이런 사악한 행위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런 행위를 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클루어 이니셔티브(The Clewer Initiative)는 영국 국교회가 현대 노예(강제노동, 인신매매, 강제 장기적출 등 포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육, 원조, 옹호 프로젝트다. 영국 정부 차원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정치권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일정한 영향력이 있다.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루마니아 콘스탄차 VIVO 쇼핑센터에서 열린 ‘2025 자연건강 박람회’(EXPONATURA 2025)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사람들에게 파룬따파 진선인의 원칙을 소개하고,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이 신앙 때문에 중공 정권의 박해를 받는 상황을 설명했다. 학생인 이리나 바타구(Irina Vatagu)는 중공의 파룬따파 박해가 선량함과 인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너무 비극적이라고 느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도 박해를 받다니요. 게다가 그런 일은 사회를 더 좋게 만들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너무 나빠요! 저는 이 (박해)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11월 1일 파룬궁수련자들은 브라쇼브 구시가지 중심에서도 행사를 개최해 행인들에게 자료를 나눠주고 진상을 알렸으며, 이 전통 수련법에 대한 중공의 박해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당신을 겁주는 것뿐이에요. 염을 바르게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사부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념이 있고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사부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사악이 뭐라고 하겠어요. 경찰은 저를 건드리지도, 찾지도 않았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됐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사부님께서 결정하시니 우리는 사부님만 믿으면 됩니다.”

2년 전 어느 정월 초이튿날, 저는 한 젊은 남자 수련생과 함께 진상을 알리러 나갔습니다. 제가 수련생에게 “내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진상을 알리러 갈 테니, 내 수레 좀 밀어주고 발정념해줘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젊은이, 아주머니가 USB 하나 줄게요. 이 USB 안에 사람을 살리는 천기(天機)가 들어있어 평안을 지켜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 당신 파룬궁이죠”라며 저를 확 붙잡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일을 당신은 듣지도 않고 도리어 나를 붙잡네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에게 진상을 알려도 그는 듣지 않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설날에 전화를 하니 파출소에서도 출동하기 싫어했습니다. 30여 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는 이 젊은이도 좀 후회됐는지 저를 위해 택시를 잡아 집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저는 “택시 잡을 필요 없어요. 이 손 봐요, 나 혼자 집에 갈 수 있어요”라며 “절대로 나를 건드리지 말아요. 나를 건드리면 당신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난이 이렇게 많은데 바로 당신이 평안하길 바라기 때문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해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와, 당신 아직도 감히 이런 일을 해요? 감히 이런 말을 하고, 감히 당을 반대해...”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당신 군대에 있군요, (진상을) 듣지 못했겠네

지?” 심장에도 병이 있고, 여기저기 다 병이었습니다. 노동수용소에서 받아주지 않아 저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저를 파출소로 데려갔지만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 있었습니다. 이때 수련생과 제 가족이 왔고 저는 천천히 걸어서 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사를 내려놓고 마음을 굳게 먹어 사악의 요구, 명령, 지시에 협력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대법제자가 정념정행(正念正行)을 위해 갖춰야 할 바입니다. 그래야 사부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협력하면 사부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탕산에서 돌아왔을 때, 경찰이 제게 ‘처분보류’ 표를 써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잡히면 바로 스자좡(石家莊) 감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7일간 법공부를 한 후 다시 수련생과 함께 진상을 알리러 나갔습니다.

한번은 또 밀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수련생을 데려갔는데 그 경찰은 저를 알아보고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웃으며 “당신도 참 어지간하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모르는 줄 알고 “뭐가 어지간하다는 거예요?”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아, 몰랐어? 당신 무슨 일 있었는지 몰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은 어떻게 또 알았어요?”라고 물었고, 그는 “경찰이 나한테 전화했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군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도 웃고 저도 웃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처분보류를 당한 후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지 그것으로

11월 1일, 네덜란드 파룬궁 순회 진상 알리기 거점이 네덜란드 서부 도시 하우다(Gouda)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도심 잔디시장(Turfmarkt)에 진상 전시판을 설치했다. 일부 수련자들은 행인들과 대화하며 전단을 나눠주고 중공의 파룬궁 박해 진상을 알렸다. 적지 않은 관광객이 파룬궁 진상을 이해하고 박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안나 우위스트(Anna Uwjist)와 에릴스 비이르(Erils Bijl)는 기독교인인데, 수련자에게 파룬궁 진상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안나는 말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매우 정상적인데, 2025년인 오늘날에도 중국에서 여전히 (신앙에 대한 박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11월 2일, 한국 파룬따파 불학회는 서울의 최대 중국인 거주지인 구로동과 대림동 일대에서 대규모 퍼레이드를 개최해 4억 5천만 명 중국인이 중공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을 탈퇴(삼퇴)한 것을 축하했다. 퍼레이드는 천국악단이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연주하며 선도했고, 이어서 ‘삼퇴팀’, ‘진상팀’, ‘홍법팀’ 순으로 진행됐다. 많은 중국인이 삼퇴 퍼레이드 대열에 이끌려 휴대폰으로 퍼레이드 장면을 촬영했다. 퍼레이드 도중에는 멀리서 중년 남자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파룬따파하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학생 임준석 군은 퍼레이드를 구경하다가 자료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인처럼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복점을 운영하는 한국인 이양선 씨(71세)는 “이곳에는 많은 중국인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누리고 있죠. 공산주의 구호는 ‘함께 나눈다’

며 듣기 좋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죄 없는 민중의 노동을 착취합니다. 과거 소련의 결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결국 공산주의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32회 거리예술 월드컵이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15개국에서 온 58개 팀, 92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현지 파룬궁수련자들이 다양한 문구의 현수막을 펼치고 관광객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중공이 지난 26년 동안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자행한 잔혹한 박해, 그리고 파룬따파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이 혜택을 본 체험담도 함께 전했다. 많은 일본 관광객이 파룬궁에 대해 알고 있다며 파룬궁수련자에게 “꼭 힘내세요!”라고 격려했다.

11월 9일, 일본 히로시마 파룬궁수련자들은 기온니시 시민관에서 개최된 기온니시 시민관 축제에 참가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무대에서 먼저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등의 곡목에 맞춰 요고팀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의 끊임없는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수련자들은 공법과 효과를 설명하면서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 동작을 시연했다. 현장에 있던 관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따라서 공법을 배웠고, 장면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미에코는 “열심히 배웠는데 끝까지 온몸에서 땀이 나는 것 같았고 피가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파룬궁이 몸에 유익한 좋은 공법’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허리에 맨 요고는 중국 역사의 유구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진선인에 따라 행한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적인 대법제자가 돼 법에 부합하겠습니다. 사부님, 안심하십시오. 사부님께서 제자를 가지해주셔서 반드시 노력해 잘하고, 틀림없이 잘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부님께서 한시름 더 놓으시도록 하고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여경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에게 진상 좀 알려주세요, 전 아주머니 얘기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얼른 일어나 앉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발정념만 했습니다. 길 내내 정념을 발했고 ‘누구도 나를 움직일 수 없어, 나는 사부님을 끝까지 따를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치소를 떠나기 전, 그곳 재소자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수련 안 한다고 말 안 해요? 그게 뭐라고. 탕산에 가면 당신 같은 사람은 뺨 몇 대 맞으면 바로 정신이 혼미해질걸요. 거기 가서 밥 안 먹으면 강제로 음식물 주입하는데, 어떻게 될지 알아요? 들어가서 3일도 못 버티고 뛰쳐나올걸요.” 그들이 저를 겁주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대법제자다, 사악은 나를 움직일 수 없다.’ 저는 발정념으로 이런 사악의 교란을 제거했습니다.

제가 납치될 때 겨울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는 봄이 돼 매우 덥고 불편했습니다. 탕산에 도착해 그들이 저를 끌어내렸지만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침 저를 그늘 아래 시원한 대리석판으로 끌고 갔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정말 편안했습니다. 저더러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서 있지도 않았고 무엇을 시켜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검사해보니 온몸이 병투성이였습니다. 그 여경이 말했습니다. “어, 어제는 검사하니 병이 없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온몸이 병투성이가 됐

없이 마비될 것만 같았습니다. 두 아이를 생각하고 또 남편 몸이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괴롭고 불안해 평온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과 관계가 좋은 한 재소자가 경찰에게 부탁해 일찍 나가려 했습니다. 저도 부탁하러 갔지만 그녀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어쩌다 이런 길을 가려 했지? 난 이 길을 가면 안 되지, 나는 사부님께서 관장하시는데. 발정념을 많이 하고 바르게 걸어야 사부님께서 나를 구해줄 수 있지, 바르게 걷지 않으면 안 돼. 나는 반드시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해.’

저는 하룻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가정이 없다면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겠지만, 가정이 있으니 이리저리 생각해도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저를 탕산으로 보낼 때 차에 오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이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는데, 어머니는 이것저것 내려놓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남은 사람들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없어도 다 마찬가지야, 절대로 이것저것 내려놓지 못해서 대사(大事)에 영향을 줘서는 안 돼.’ 마음속으로 정념을 확고히 했습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누가 없어도 다 똑같아. 나를 되돌려서 수련을 못 하게 하려 해도 어렵잖아, 넌 그렇게 못해.’ 저는 사부님께 제자를 가지해주시길 청하며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를 가지해 주시길 청합니다. 저는 사부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저는 오직 위로 한 걸음 오를 뿐, 절대 한 걸음이 라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사부님을 도와 법을 바로잡고 중생을 구하며, 사부님께 죄송한 일을 하지 않고, 반드시 표준

■ 중국 소식 ■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베이징시 평타이구 파룬궁수련자 장바오링(張寶玲)이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2025년 7월 말 평타이구 법원으로부터 억울한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바오링은 상소했지만, 베이징시 중급법원은 10월 24일 부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장바오링은 신체적인 이유로 현재는 감옥 외 집행 중이다. 2022년 6월 19일, 장바오링은 진상 자료를 배포하던 중 평타이구 경찰 왕전웨이(王俊偉)와 왕린다(王林達) 등에게 다홍면 파출소로 납치됐으며, 36시간 동안 불법 구금된 후 소위 처분보류로 풀려났다. 2024년 2월 23일, 장바오링은 다시 다홍면 파출소 경찰 가오용(高勇) 등에게 납치돼 평타이구 구치소로 압송됐다. 장바오링의 고혈압이 220mmHg에 달했기 때문에 구치소는 그녀를 받지 않았으며, 그녀는 다시 처분보류로 풀려났다. 2024년 7월, 평타이 공안분국은 장바오링을 모함해 평타이구 검찰원에 넘겼으며, 2025년 1월 하순, 평타이구 법원은 장바오링에 대해 부당한 재판을 진행했다.

다롄 출신 파룬궁수련자 장원텐(姜雲天)은 2024년 7월 12일 광저우시에서 현지 경찰에게 납치됐으며, 이어서 사법 박해를 당해 광저우시 리완구 법원으로부터 4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장원텐은 상소했지만 광저우시 중급법원은 부당하게 원심을 유지했다. 이전에는 3년간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당하고 10년 동안 부당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감옥에서 잔혹한 박해를 당했다. 지금까지도 그의 몸에는 노동 교양소 경찰이 전기 충격을 가한

흉터가 남아 있다.

2023년 3월, 산둥성 칭다오 파룬궁수련자 리칭(李清)과 아내는 양저우에 유람갔다가 서우시호 풍경 명승구 분국 파출소에 의해 납치됐다. 경찰은 23일 정오에 자료를 배포하던 중 카메라에 찍혔다고 주장했다(진상 카드를 배포하다가 누군가에 의해 무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됨), 파출소와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대대의 천(陳) 경찰과 운전기사 등 4명이 그들을 칭다오로 데려가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했다. 리칭은 양저우시 장두구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25년 10월 23일 양저우 경찰에 의해 납치돼 다음 날 강제로 쑤저우 감옥으로 끌려가 불법 구금 및 박해를 받았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의 85세 파룬궁수련자 차오스빈(曹世斌·남)은 2025년 11월 6일 오전에 치치하얼시 푸위현 공안에 의해 강제로 하얼빈 자택에서 끌려갔다. 그는 현재 푸위현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으며 자세한 상황은 확인 중이다. 차오스빈은 헤이룽장성 공학원을 졸업한 고급 엔지니어로, 40년 가까이 병기 공장에서 경량 무기 설계 및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했다. 2025년 1월, 푸위현 현장에게 진상 편지를 보내 선행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차오스빈은 푸위현 공안·검찰·법원 관련 인원에게 누명을 쓰고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만 위안의 벌금을 강탈당했다.

청두시 파룬궁수련자 위슈충(余秀瓊·여)은 사람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2025년 10월 19일에 청두시 신두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위슈충[혹은 위슈첸(余秀群)]은 50살이 넘었으며, 청두시 신두구

서 ‘파룬따파하오’를 외쳤잖아요, 그래서 알아요”라고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어느 날 밤 경찰이 저를 신체검사하러 끌고 가려 했지만 저는 협력하지 않으며 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부님께서 수련생을 구하실 때는 일사일념(一思一念)이 모두 법 위에 있어야 하고 사람의 마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빨리 나가야지’ 같은, 그 어떤 세부적인 것이나 일사일념이라도 모두 법 위에 서야 하고, 사부님을 도와 법을 바로잡고 중생을 구하는 이 각도에 서서 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들이 저에게 신체검사를 받으러 나가라고 했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생각이 법 위에 있지 않고,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어쩌면 나를 풀어줄지도 몰라’라는 이 한 생각이 있었다면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여경이 저를 끌어당겼지만 저는 저항했습니다. 그 경찰은 저와 여러 번 접촉했기에 “아주머니, 가시죠, 신체검사 받으러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난 병 없어요, 검사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대법 수련하는 사람들은 몸이 아주 건강해서 검사받을 필요 없고, 아무도 나를 상관할 필요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경찰 두 명을 더 불렀고 저를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끌려면 끌라는 식이었고 어쨌든 저는 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검사해보니 아무 병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것 봐, 아무 병도 없잖아, 우리보다 더 정상이네”라고 말합니다. 신체검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여경이 전화를 받으며 내일 탕산(唐山)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내일 탕산 노동 수용소로 간다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에 발정념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집에서 기둥 같은 존재였는데, 마치 이 집은 저

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상의할 동반자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수련생이 떠나니 저도 무척 외로웠고 스스로에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저에게도 젓가락 포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칭찬까지 했습니다. “당신 젓가락 포장하는 게 정말 빠르고 좋네요.” 사실 저는 빠르지 않았는데 그들은 단지 제가 그곳에서 일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발정념도 할 수 없잖아. 이 건 안 되지, 그들을 위해 일해 줄 수 없어.’ 저는 “안 돼요, 여기서 일 못 하겠어요. 몸이 안 좋아요. 방으로 돌아가야겠어요”라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발정념하고, 법을 외우고, 진상을 알렸는데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저를 불법 심문하며 쇠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대법제자인데 이런 곳에 앉을 수 없어.’ 저는 틈새로 빠져나갔는데 원래대로라면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었지만 아주 신기하게도 저는 나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나온 것을 보고 웃으며 다시 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뭐라고 하면 저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이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돼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라고 외쳤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외쳤고, 외치면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2층 방에 도착한 후에는 창문을 사이에 두고 아래를 향해 외쳤습니다. 외치다 지치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외쳤습니다. 아무도 저를 제지하지 않았고, 저는 계속 외쳤습니다. 1층과 2층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한번은 진상을 알리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을 알아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를 아세요?”라고 묻자 그는 “잇으셨어요? 당신 구치소에

에 거주하고 있다. 2024년 8월 20일 오후 4시경, 그녀는 한 청년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는데 그 청년은 사진을 찍고 악의적으로 신고했다. 다음날, 위슈충은 집에 쳐들어온 타이싱 파출소 경찰들에 의해 납치 및 가택수색을 당하고 피현 구치소로 끌고 가 불법구류 당했다. 2024년 12월, 위슈충이 누명을 쓰고 신두구 검찰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산둥성 동잉시 구다오진의 70대 파룬궁수련자 장슈첸(張秀群·여)은 2024년 4월 24일 구다오진 전마창 파출소 경찰에 유인·납치된 후 동잉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이후 누명을 쓰고 동잉구 검찰원과 동잉구 법원에 차례로 넘겨졌다. 최근 장슈첸이 이미 감옥에 끌려가 불법적으로 2년형을 선고받고 산둥성 여자감옥에 수감된 사실을 알게 됐다. 장슈첸은 원래 체형이 비교적 통통하고 둥근 얼굴이었으나 지금은 지금은 박해로 매우 말라 몰라보게 변했다.

원난성 쿤밍시 쑹밍현에 사는 62세 파룬궁수련자 쉬춘핑(許春鳳)은 2024년 4월 25일 자정 12시쿤밍시 청궁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과 현지 경찰에 의해 불법 가택수색 및 납치됐다. 건강 검진 결과가 불합격이어서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하자, 셋째 날, ‘처분보류’ (사흘 동안 밥을 주지 않았다) 처리되고 7월 17일에 법원에 제출해 기소했다. 2025년 9월 23일, 쉬춘핑은 이량현 법원에서 억울하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위안을 선고받았다. 전 과정은 20분도 채 안 걸렸다.

후베이성 우한시 칭산구 70대 파룬궁수련자 장리화(張麗華)는 2025년 8월에 514번 버스를 탔을 때 버스크드에서 소리가 나서 두 버스 기사에게 신고당했다. 경찰은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구두로만 원래의 ‘사건’으로 1년 6개월 수감당한다고 통보한 뒤 그녀를 우한 여성 감옥[우한시 바오핑에 위치함]으로 납치했다. 2019년 8월 26일, 칭산구 법원은 진인후 파출소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담당자들과 공모해 인터넷 감시, 추적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장리화를 다시 납치해 베이후 세뇌반에 보내 무자비하게 강제로 약물을 4개월간 투여했고 ‘처분보류’라는 명목으로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기간 칭산 분국 경찰 저우위안(周源)과 홍산 검찰원 사람들이 강제로 서명을 받아 사건을 접수했다. 2020년 11월 13일, 홍산 법원은 불법적으로 재판을 열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

—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결정하신다 —

글/ 중국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전편에 이어) 한번은 제가 수련생과 함께 진상을 알리러 나갔다가 사복경찰 한 무리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경찰인 줄 몰랐고 수련생이 마침 진상 스티커를 붙이던 중이었는데, 결국 저희는 납치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저를 차에 태우려 했지만 저는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거부좌했습니다. 수련생이 “그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녀의 뜻은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게 뭐가 두려운가, 우린 창피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파출소와 구치소에 가서도 저는 줄곧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 있을 때 한 수련생이 제게 “와, 제가 보기에 당신은 영웅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이치로 말하면 영웅이겠쥬. 법의 이치에서 말하자면 사악의 요구, 명령, 지시에 협력하지 않는 것이예요. 이것이 바로 법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고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그들에게 협력해야 하나요? 이것이 바로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젓가락 포장(강제노동)을 하러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게 “봐요, 당신 자매는 젓가락 포장하러 갔는데, 엄청 잘한대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몰래 훑쳐보니 정말 젓가락 포장을 하러 갔더군요. 저는 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박해를 받는다면 박해에 맞서야 하며,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악에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경문 ‘대법제자의 정념은 위력이 있다’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 대법제자로서 무엇 때문에 박해를 감당할 때 사악한 자를 두려워하는가? 관건은 집착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극적으로 감당하지 말고 시시각각 정념(正念)으로 악인을 정시(正視)하라. 어떤 환경이든지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말라.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한다면 환경은 이렇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어디에 있든 세 가지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고, 정념을 발하고, 법을 외우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발생할 때마다 저는 사부님의 이 법 구절 “어떤 환경이든지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말라”에 따라 행했고, 명혜망에 실린 수련생들의 박해 반대 경험을 참고했습니다. 그 수련생들도 사부님의 제자이고 저도 사부님의 제자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으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수련해 없애야 하는데 아무것도 감히 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수련하겠습니까?

(계속, 명혜망 제22회 중국 법회 원고)

■ 수련 교 류 ■

시련 속에서 자신을 수련하다

글/ 해외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많은 중국 수련생이 온라인 그룹에 참여했다가 같은 날 납치되는 일이 발생해, 이 사실을 아는 수련생들의 통탄과 탄식을 자아냈다.

중국의 온라인 그룹은 처음에는 일부 사람이 세상 사람을 구하는 항목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일 욕심이 팽창하고 법공부가 부족해지면서, 맹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됐고 점차 사람을 구하는 주된 흐름에서 벗어나게 됐다. 온라인으로 사람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전국 각기 다른 지역의 법공부 그룹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변질됐으며, 끊임없이 사생활과 행적을 노출하며 안전 문제를 일으켰다. 동시에 그들 자신의 수련에 사람 마음이 섞여들어 과시심, 아첨, 환희심 등 각종 사람 마음이 마(魔)에게 이용돼 비밀을 지키지 못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항목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까지 강제로 항목에 합류시켜 접속자 수를 늘리려 했으며, 심지어 이지적이지 못해 난법자, 사오(邪悟)자까지 그룹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이 수년 동안 온라인 그룹의 혼란스러운 현상을 초래해 수습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룹 협조인과 수련생 간의 갈등이 상호 배척과 공격을 부추기게 됐다. 이들은 안전과 사생활을 무시하면서, 휴대폰 등 장비 구매 및 양도, 위챗과 알리페이를 통한 가상 사설망(VPN) 거래 및 이체, 실명 택배 등의 활동을 해 대량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심지어 위챗, QQ 등 채팅 소프트웨어를

내려놓지 못하고 법리 토론을 크게 떠들어대며 난법자들의 강연 플랫폼이 되기까지 했다.

이처럼 온라인 함정에 빠진 수련생들을 보며 주변의 많은 대법 제자는 매우 애가 났다. 여러 차례 만류했으나 효과가 없자 거듭 글을 써서 명혜망에 투고했으며, 간절하고 격동한 언사로 명혜망에서 인식을 교류해 잘못된 길로 가는 수련생들을 도우려 했다.

주변 수련생이 난에 빠진 것을 보고 노력해 교류하고 만류하는 것은 수련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다. 하지만 수련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사부님께서 ‘정진요지(精進要旨)’ 중의 ‘견정(堅定)’ 이 문장에서 말씀하신 “수련이란 자신의 일로서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았고, 말했고, 수련인의 선한 마음으로 대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려놓지 못하는 것 또한 집착이다.

수련인은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수련인은 문제에 부딪히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현상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는지, 자신의 어떤 집착을 드러내게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문제를 지적하고 수련생을 도울 때 자신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정으로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는지 봐야 한다. 수련생들의 쟁투심, 물질적 욕망과 금전에 대한 집착, 명예와 이익 다툼에 대한 집착을 보았을 때, 자신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 잘못된 길로 가는 수련생들이 수련할 줄 모르고, 오랫동안 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자신은 법공부를 잘했는지, 법의 요구에 따라 진정으로 자신을 수련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수련 중에 겪는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니며, 모두 법 속에서 질

지 말고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그냥 같이 산책하자고 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이 그 두 경찰은 수련생을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아니, 왜 저 사람을 차에 태워요!”라고 말했습니다. 두 경찰이 저와 수련생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풀이 가득 묻어있는 것도 잊고 한 손으로 경찰 한 명씩 잡고 ‘획’ 하고 뿌리쳤는데, 두 사람이 꽤 멀리 밀려났습니다. 이것이神通(神通)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찰이 다가와서 “아이쿠, 왜 내 온몸에 풀이 묻었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 봐요. 날 건드리지 말라니까요. 내 손에 있던 풀이 다 당신한테 묻었잖아요.” 저는 수련생을 차에서 끌어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일이 아니에요. 집에 가세요.” 저는 경찰에게 “저 사람 일 아니에요. 소책자는 제 거예요. 저 사람 집에 가게 하고 무슨 일이든 저한테 말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법에 따라 하고 수련생을 위하며, 일체를 그를 위해 제가 책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수련생이 떠날 때 매우 미안해하며 저와 함께 가려고 돌아보기에 저는 “당신 일이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이젠 제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세요, 우리가 집까지 태워다 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태워줄 필요 없어요. 저 혼자 걸어갈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럼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법에 따라 행하자 사부님께서 제자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잘하는 수련생들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수련생 여러분께 박해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할 것이

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경찰들과 엮이면서 이 파출소 경찰들은 모두 저를 알게 됐고, 길에서 마주치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번은 집 근처에서 한 대학생에게 진상을 알리고 나서 그에게 소책자 주는 것을 잊었습니다. 저는 그 대학생이 쫓아갔지만 따라잡지 못했는데, 저를 아는 경찰이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경찰이 차를 몰고 와서 저에게 “뭐 하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람 구하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사람을 구한다고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럼요. 당연히 사람을 구하죠. 당신은 뭐 하러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젊은이, 이 아주머니를 만났으니 구원받아야지. 아주머니가 당신 당·단·대 탈퇴해서 평안을 지켜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샤오량(小亮)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말했습니다. “탈퇴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대법은 바로 불법(佛法)이라 누구든 들으면 구원받고 평안해져요. 듣지 않으면 도태된답니다.” 그는 동의하고는 “안전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이 파출소 경찰들은 대부분 진상을 인정했습니다. 단지 한두 명의 경찰만이 진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길에서 저를 봐도 저와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한번은 제가 한 수련생과 풀을 들고 진상을 알리며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누군가 밀고했습니다. 경찰차가 우리 앞에 ‘깍’ 하고 멈춰 섰습니다. 경찰이 내리더니 “또 이 사람이네”라고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라고 묻기에 저는 “사람 구하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수련생의 주머니를 뒤져 소책자 몇 권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거 다 제 거예요. 저 사람과는 상관없어요. 저 사람한테 말하

서 정연하게 안배된 것이다. 수련 중에 정(正)과 부정(不正)의 각종 안배와 시험은 본래 어려운 것이며, 이런 환경은 마굴(魔窟)과 다름이 없다. 이는 수련인이 정(正)과 사(邪)를 가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일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지혜와 이성 또한 시험하는 것이다.

각 수련생의 수련은 사부님의 법신께서 관리하고 계신다. 각 수련생이 난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자신의 앞날을 정한다. 우리 각자가 수련하는 것을 배우고,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해 주신 때 기회를 잘 이용하며, 대법제자 단체가 모두 성숙해진다면, 아마도 혼란스러운 현상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상은 개인적인 체득이며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비평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수련생과 함께 정진하는 것은 나의 책임

글/ 산동성 대법제자

[명혜망] 법공부를 통해 나는 수련생과 함께 정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저의 책임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제자는 각기 다른 우주에서 온 왕이고 그들이 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제가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봄부터 저는 우리 지역 수련생들의 수련 상태가 정도는 다르지만 해이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수련생은 단체 법공부에 참가하지 않았고, 어떤 수련생은 병업 가상이 나타났으며, 어떤

수련생은 출근하느라 바빠 법공부할 시간도 연공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저는 F 수련생과 교류해 주변에 법공부 팀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이 자세히 상의한 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시간이 맞지 않았고 어떤 수련생은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F의 노력과 사부님의 가지(加持)로 우리는 한 노년 수련생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노년 수련생은 성격이 좀 이상했는데 이전에 두 그룹의 수련생이 그녀와 함께 법공부했지만 모두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련생은 법공부하려는 마음이 매우 적극적이었고 수련생이 와서 함께 법공부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수련생 집에 도착해 저는 간단히 제 소개를 했습니다. 수련생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분명 사부님께서 당신을 오게 하신 거예요. 드디어 집에서 단체 법공부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우리는 서로 아직 잘 몰랐기에 앉자마자 ‘전법륜(轉法輪)’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한 단락 읽고 제가 한 단락 읽었습니다. 수련생은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법을 유창하게 읽어 저는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합니다. 당시에 저도 이 환희심을 붙잡지 못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글자를 틀리거나 빠뜨리기 시작했고 빈도도 꽤 높았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바로잡아주자 그녀는 언짢아하며 불친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안 왔을 땐 내가 잘 읽었고 아주 익숙해서 글자도 안 틀렸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죠?”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저도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사실은 거짓 웃음) 말했습니다. “누구든 글자를 틀리거나 빠뜨리면 바로잡아야 해요. 이것은 사부님께서 남겨주신

저는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 주민센터와 지역사회 담당자 여러 명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저를 설득하러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셨네요.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좋은 사람인데 그들이 저를 이곳에 잡아왔어요”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가버렸습니다. 저녁 10시쯤, 경찰이 저를 구치소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한 참을 실랑이한 끝에 저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구치소에 가서도 저는 여전히 알렸습니다. 법에 부합하게 할 때 사부님께서는 모두 보살펴주십니다. 구치소에서는 일만 있으면 파출소 경찰을 불렀고 자꾸 부르니 그들도 귀찮아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풀려났는데 파출소에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안에 있을 때 저는 감방 동료에게 “내가 언제 나갈지 몰라요”라고 말했습니다. 감방 동료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구류됐으면서 며칠 만에 나가려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칠 안 걸려서 나갈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나가기 직전에 또 다른 대법제자 한 분이 간혀 들어왔는데, 그녀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에게엔 사부님이 계시잖아요. 반드시 법 위에서 당당하게 헤쳐나가야 해요. 일이 없으면 법을 외우고, 진상을 알리고, 정념을 발해야 해요. 우리는 잘해서 사부님을 안심시켜 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해요. 사부님께서 우리를 구하고 계세요. 사람의 길을 가지 마세요.” 그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올 때쯤 그녀의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떠날 때 감방 사람들은 “저 사람 아직 나갈 때가 안 됐는데 정말 가네”라

이건 나쁜 사람이 많으니까 당신들을 순찰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다 악당이 한 짓이고 좋은 일은 안 해서 우리 인민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입 닥쳐!”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말 안 하면 당신들이 알겠어요? 이게 그런 거 아닌가요? 당신들은 몰라서 내가 알려줘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사람을 데려오면 저는 또 말을 걸어 악당의 사악함을 알리고 진상을 알렸습니다. 한 여경이 “저 사람 참 담이 크네. 감히 공산당을 말하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 공산당이 저지른 그 악행들을 말도 못 하나요? 누가 악행을 저지르든 우린 생각해봐야죠. 악행을 저질렀는데 말도 못 해요? 말 안 하면 당신들이 모르잖아요.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 당신들은 분명히 가려야 해요.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해야 한다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 이상 이곳에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그들은 제 옷소매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는 저를 아무도 없는 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들에게 안 좋습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구하고 중생을 구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은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파룬파파하오’를 염해야 평안을 보우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사부님께서는 당신들의 지난 잘못을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들이 역사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우리 사부님께서는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지금 당신들이 대법을 대하는 태도만 보십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바로 당신들을 구하십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는 못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저 자신이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법공부 형식이에요! 글자를 틀리거나 빠뜨리는 것은 법을 잘못 읽는 것과 같아요. 사부님께서는 글자 하나하나의 뒷면에는 층층의 불, 도, 신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제4강을 읽을 때쯤 그녀는 제고됐습니다. 노년 수련생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 허리가 펴진 것 좀 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얼굴도 예뻐지셨고 혈색도 불그스레해지고 얼굴에 웃음꽃도 피었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부님과 대법이 제게 웃는 얼굴을 되찾아주셨어요. 저는 몇 년간 웃을 줄 몰랐어요. 당신에게도 감사해요!”

그녀는 또 제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99년 박해 이후 탄압 속에서 저는 수련을 포기했고 법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 모든 병이 재발했고 수술한 뒤에는 후유증까지 생겨 생활을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사부님께서 다시 저를 구해주셨어요. 이번에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반드시 잘 수련할 거예요. 사부님께서 당신을 제 곁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고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수련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의혹도 풀렸습니다. 어쨌든 그녀가 성격이 괴팍하고 무표정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둘이 법공부한 시간이 길어지자 다시 그녀에게 법을 읽다가 틀리거나 빠뜨린 글자를 지적해줄 때 그녀는 또 냉담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안 오면 나도 틀리게 읽지 않아요. 당신이 안 오면 나 혼자 아주 익숙하게 읽어요. 당신이 안 오면 내 머리도 아프지 않아요. 당신이 안 오면 내 마음도 불편하지 않아요. 당신이 안 오면 내 눈도 침침하지 않아요.” 그녀의 질책에 저도 기가 꺾여 더 이상 그녀와 함께 법공부하고 싶지 않았습

니다. 저는 F를 찾아가 이런 상황에 대해 교류하고 그녀의 심성이 제고되지 못해 또 무슨 일이 생겨 대법에 먹칠할까 봐 두렵다고 설명했습니다. F는 오히려 “당신 둘 다 제고해야 해요! 수련생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안으로 찾아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불현듯 깨달았고 수련생의 일깨움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안으로 찾으며 저는 이것이 바로 사심이고 위험을 감수하기 두려워하며 자신의 기본점을 바로잡지 못한 것으로 출발점이 사(私)를 위하고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하신 “사람의 전반 수련 과정은 바로 끊임없이 사람의 집착심을 제거하는 과정이다”라는 한 구절의 법이 또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수련생에 대조해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1. 수련생이 글자를 틀리게 읽는데도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도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2. 수련생의 표정이 냉담한 것은 또한 나의 불선(不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3. 수련생이 글자를 틀리게 읽는데도 지적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질책하는 것은 내가 가진 당문화 속의 ‘거짓, 악, 투쟁[假·惡·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것이 바로 사부님의 신묘한 안배이며 수련생의 표현을 통해 제게 있는 부족함을 드러내시어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련해 없애 빨리 제고하게 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즉시 정념을 발해 사존의 가지를 청하며 ‘이 사람마음들을 원하지 않으니 저는 오직 사부님의 말씀만 듣고 대법의 표준에 따라 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수련인으로서 생활 속에 우연한 일은 없으며, 모든 일을 수련의 각도에서 출발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까지 온종일 입에서 거품이 났습니다.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체육관 주변은 온통 경찰이었습니다. 한번은 제가 그 근처에서 진상을 알리는데, 옆에서 일하던 한 젊은이가 아주 좋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진상을 알리자 그도 탈퇴했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권할 때는 그가 옆에서 돕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길을 건너면서 저를 향해 웃어 보이기도 했는데, 실은 경찰에게 신고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막 떠나려는데 경찰이 제 앞에 와서 저를 근처 파출소로 납치했습니다. 저는 평소 ‘명혜주간’을 매우 꼼꼼히 봅니다. 병업 고비이든, 박해에 관한 교류이든, 아니면 다른 방면의 교류이든, 아주 잘한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읽어보며 머릿속에 기억해둡니다. 저는 붙잡힌 후 박해받을 때 수련생들이 어떻게 헤쳐 나왔는지, 어떻게 대법을 실증했는지를 떠올리며 저도 그것을 참고했습니다. 저는 진상을 알렸는데 경찰을 만나면 알리고 일반인을 만나도 알렸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앉아서 정념을 발했고 사람이 오면 알렸습니다. 경찰이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좀 봐.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머물게 한 방은 철판으로 공간이 나뉘어 있었는데, 그들이 밖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피곤해. 온종일 순찰하라고 하니 힘들어 죽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 그거 알아요? 이젠 다 악당이 한 짓이에요. 저 장쩌민 두꺼비가 사회를 잘 이끌었다면, 우리 사회가 평안했다면 당신들이 순찰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안 그런가요? 그럼 우리 모두 편안하고 안정적이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신들도 이렇게 피곤할 필요 없잖아요.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뇌반으로 납치됐습니다. 그곳은 시내에서 꽤 외진 곳에 있는 빈집이었는데, 경찰과 각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있었고, 밤에 잘 때는 경찰이 복도에서 보초를 섰습니다. 남편이 이번에는 잘 대처해줬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와 별일 아니라고 말하고는 저를 직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수련생들은 그 안에서 좋은 일을 했는데 청소를 하고, 무슨 일이든 솔선해서 했으며, 그들에게 진상도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상을 알고 구원받았습니다. 세뇌반 책임자가 감동해서 “대법은 좋습니다. 여러분은 노력해서 잘 배우고 잘 연공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4. 정념을 지키며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

처음에는 진상 자료가 없어서 저는 손으로 써서 풀로 붙였습니다. A4 용지를 반으로 잘라 흰 종이에 붉은색 정체자(正體字)로 쓰곤 했는데, 꽤 예쁘게 썼습니다. 인부들이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수련생과 함께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며 가는 길에 말할 수 있으면 말하고, 붙일 수 있으면 붙였습니다. 때로는 동행이 있었고 때로는 혼자였습니다. 한번은 제가 큰길에 스티커를 붙이러 갔는데 그곳은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사람이 좀 적을 때 일찍 가서 붙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막 붙이고 있는데 흙 비탈 저쪽에서 한 남자가 “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뛰자 그도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한참을 달려 작은 숲속까지 도망쳤는데 더 뭘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따라잡고는 “왜 도망가요?”라고 물었고, 저는 “왜 저를 쫓아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으려던 게 아니라 색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뛰어서 입에 흰 거품이 생겼는데

이번에 우리 둘은 모두 제고됐습니다. 다음 날 법공부할 때 수련생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고 제가 바로잡아주어도 그녀는 더 이상 반감을 갖지 않았으며, 제가 지적하는 것마다 모두 겸허하게 바로잡았습니다. 사람 마음을 제거하니 우리 법공부 환경도 화목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모두 사존의 가지 아래 법 속에서 자신을 바로잡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또 한 분의 노년 수련생이 있는데 병업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근 그녀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왜 우리집에 법공부하러 오지 않아요?” 저는 매우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그녀의 집에 법공부하러 갔었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끝까지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노년 수련생의 집에 법공부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는 난 속에 있는 수련생이 얼마나 수련생의 도움을 갈망하는지 알기에 깊이 후회했습니다. 사존께서도 우리 대법제자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정진해 정법 노정을 따라잡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매주 정기적으로 특별한 상황에 있는 수련생의 집에 가서 함께 법공부하고 교류하며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깨달음이라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법 회 ■

법을 외우면서 착실한 수련을 배우다

글/ 중국 지린(吉林)성 대법제자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6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행복한 일은 제가 정법시기 대법제자라는 것이며 가장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지난 2~3년간 수련한 체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격차를 보고 법을 외우기 시작

사부님께서 새 경문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발표하셨는데, 저는 법공부를 마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중생들에게 많은 천기(天機)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 읽고 또 읽었는데, 매번 읽을 때마다 다른 체험과 느낌이 있었습니다. 법공부를 마칠 때마다 저는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염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아주머니 수련생 댁에 갔는데, 그 아주머니는 사부님의 새 경문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이미 외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머니는 60세가 넘었는데, 이렇게 긴 경문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벌써 다 외웠다는 사실에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이 너무 형편없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보다 젊고 기억력도 좋은데 왜 외울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것은 저의 법공부

였습니다. 당시 환경은 매우 열악했는데 공안국에서 내려와 조사하고, 직장에서도 압박하고, 집에서도 압박했습니다. 게다가 오빠 일까지 겹쳐 압력이 상당히 컸지만 저는 곳곳이 진상을 알렸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자신이 아직 잘 수련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법을 수호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법을 수호하는 데 잘 수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당신이 잘 수련할 때쯤이면 이 단계는 이미 지나갔을 거예요. 잘 수련하지 못했으면 천천히 수련하면 되죠. 사부님께서 모함을 당하시고 대법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대법제자는 베이징에 가서 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수련하지 못했으면 수련하면 되는 거고, 이 단계는 놓쳐서는 안 되며 마땅히 가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심성이 높지 않아 수련생에게 말할 때도 화를 좀 냈는데, ‘이렇게 큰일에 잘 수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베이징에서 돌아왔을 때 공안국과 파출소 사람들은 우리에게 베이징에 가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했고, 3천 위안을 예치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가는 사람은 이 3천 위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지 않은 사람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베이징에 법을 수호하러 가자 그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베이징에 가는 것이 3천 위안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쁘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市)에서 세뇌반을 열려고 하는데 연공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지 않으면 세뇌반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쓰고 제출했더니 그들은 “이게 보증서를 쓴 겁니까? 이걸 결심을 쓴 거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대법인데 무슨 보증서를 쓰라는 건

등록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어떤 사람은 다른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활동(법 암기 등)은 누가 조직했나?”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한 어린 소녀가 “저요”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 소녀를 끌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이 맞닿을 정도로 비좁았던 방에 나중에는 사람이 점점 줄어 5~6명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주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집에서 저를 사방으로 찾으려 다녔고 파출소에 가서 제 이름을 대며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수련생과 함께 현지로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대법제자가 잡혀가 박해를 받다가 난(難)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수련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감옥 문을 나설 때 사부님을 뵈었다고 합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애가 타셔서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이 대법제자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대법제자가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저는 잘하지 못할 때마다 사부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중생을 구하는 일에 사부님께서는 그토록 조급해하십니다. 사부님의 ‘호주 수련생을 위한 설법’ 녹화 영상을 볼 때면 저는 울곤 하는데, 사부님께서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 온갖 애를 쓰셨습니다. 대법제자가 잘하지 못하면 사부님께서는 애태우십니다. 저는 ‘반드시 잘해서 사부님께 보답하고, 사부님을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해가 시작된 후부터 저는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출근하고 있어서, 작업실에서도 알리고, 가는 곳마다 알

태도 문제였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게을렀으며, 편폭이 길다는 것을 보자마자 어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막 법을 얻은 몇 년 동안 사부님께서 여러 차례 설법 중에서 모두가 법공부를 많이 하고, 되도록 법을 외우도록 요구하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모두가 행동에 나섰고 저도 적극적으로 법을 외우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법을 외우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외우는 것이 잘 안 됐고, 한 단락의 법을 외우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마음은 더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성에서 안으로 찾을 줄 몰랐고, 속인의 관념과 사고방식으로만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법을 외우는 것은 너무 느려, 읽는 것보다 못 해.’ 그 후 저는 다시 법을 읽기 시작했고, 매일 그냥 통독만 했으며 다시는 법을 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부님께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아주머니 수련생이 법을 외우는 것을 보게 해 저의 법을 외우고 싶은 염원을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법을 외울 것입니다. 제자를 일깨워 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고 단숨에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 《인류사회는 왜 미혹(迷)의 사회인가》, 《각성하라》 등 여러 편의 새 경문을 외웠는데, 아주 익숙하게 외웠습니다. 거기에 《논어》까지 더해서, 저는 매일 시간을 내어 이 경문들을 한 번씩 외웠습니다. 매일매일 외우니 날마다 새로운 체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다시 《전법륜(轉法輪)》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했고, 외울수록 빨라지고 외울수록 더 외우고 싶어졌으며, 매일 꾸준히 외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정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착실한 수련을 배운 것입니다. 단체 법공부 시 저는 결가부좌를 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으로 책을 받들고 사부님을 공경하고 법을 공경하며 정신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강(講)의 《전법륜(轉法輪)》을 다 읽어도 피곤하거나 졸리지 않았고, 표면적인 의미는 모두 알 수 있었으며, 가끔 법리도 나타났습니다.

저는 또 매일 5가지 연공을 한 번에 끝까지 견지할 수 있고, 포륜(抱輪)을 한 시간 해도 전혀 힘들지 않으며, 가부좌를 한 시간 해도 허리를 곧게 펴고 피곤하거나 졸리지 않으며, 가끔 입정(入定)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2시 정념을 발한 후 잠자리에 들고, 낮에는 출근해도 전혀 피곤하거나 졸리지 않고 오히려 정신이 맑고 활력이 넘칩니다.

제가 법을 수련한 지 이렇게 여러 해가 됐지만, 이 2년간의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법을 외우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잘할 수 없었거나 매일매일 견지할 수 없었습니다. 법을 외우는 것은 저를 단숨에 정진하고 착실한 수련을 할 줄 아는 대법제자로 변하게 했고, 게다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변화였습니다. 대법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법 외우기를 강화하고 굳건하게 법을 실증

법 외우기와 법공부를 강화하면서 머릿속에 법을 많이 담게 됩니다. 저는 시시각각 법 속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일을 만날 때도 무조건 안으로 찾을 줄 알았으며, 자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시시각각 스스로에게 대법제자임을 경고하고 느슨해지거나 나

운 버스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그 장면은 너무나 비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떤 수련생이 경찰에게 진상을 알렸는데 천목(天目)이 열린 수련생이 사부님께서 외국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봤고, 사부님께서 천안문 광장 위에서 대법제자들을 보고 계신 것을 봤으며, 대법제자들을 태운 경찰차가 가다가 고장 났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부님 이야기를 하면서, 사부님께서 검소하게 생활하시고 자녀에게 비싼 신발 대신 2위안짜리 신발을 사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모두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밤 12시부터는 체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가둘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으로 끌려갔는데 아주 많은 수련생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논어’와 ‘홍음’을 외우고, “파룬파파하오”라고 외쳤습니다. 경찰이 수련생들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수련생들은 팔짱을 끼고 서로 허리를 껴안으며 경찰이 수련생을 따로 데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자 경찰은 우리 등을 밟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수련생들의 정념정행에 큰 충격을 받았고 감동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많은 수련생과 함께 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밤에도 이불을 주지 않았고, 나중에 다 떨어진 이불을 줬다가 다시 빼앗아 갔습니다. 문과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에는 물을 뿌려 얼어붙게 했습니다. 모두 아침마다 법을 외우고 ‘파룬파파하오’라고 외치며 진상을 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이렇게 법을 외우는 것도 못 하게 하고는, 무장 경찰 한 소대를 보내 대법제자들을 떼어놓고 함께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며칠 후, 어떤 사람은

우리는 내렸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수련생들이 현수막을 펼치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높은 곳에서 전단을 들고 인파를 향해 뿌렸습니다. 뿌릴 때 아주 신기하게도 전단이 사방에 흩날렸습니다. 경찰이 전단을 주우러 왔지만 저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저는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든 수련생은 경찰에게 납치됐습니다. 저는 ‘천안문에 아직 대법제자들이 있으니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을 실증하고 이 일을 잘해내야겠다는 일념으로 천안문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 공포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천안문 광장에는 곳곳에 대법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우리 사부님의 결백을 돌려달라!”라고 외치면 저쪽에서도 또 외쳤습니다. 그 소리는 하늘과 땅을 울렸습니다. 그 벽찬 감동은 인간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었고, 저는 감동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대법제자가 현수막을 펼치면 저도 다가가 함께 들고,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우리 사부님의 결백을 돌려달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대법제자들은 서로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응집력이 대단했고, 전체가 아주 잘 협력했습니다. 모르는 몇몇 산둥 대법제자들이 몇 미터나 되는 아주 큰 현수막을 펼치려고 하기에 저는 얼른 달려가서 함께 잡고 빨리 펼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고 결국 경찰에 납치됐습니다.

선달그믐에 베이징에 온 수련생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천안문 광장에는 사복 경찰이 곳곳에 깔려 있었고, 납치된 수련생들은 버스에 실려 속속 천안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대법제자들을 가득 태

태해져서는 안 된다고 일깨웠습니다. 모든 가용 시간과 기회를 이용해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집에는 90세 가까운 두 분의 노인을 돌봐야 합니다.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가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중생을 구합니다. 저는 아침에 두 분 노인을 위해 점심 식사를 준비해 놓고 점심때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차에 가서 정오 12시 정념을 받습니다. 겨울에는 차 안이 춥고 여름에는 차 안이 덥지만, 저의 발정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근할 때 입지 않는 옷과 신발로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씁니다.

저는 정념을 받으면서 출발하고, 매일 다른 장소, 다른 단지로 갑니다. 매번 진상 자료를 배포한 곳은 제가 저만의 방식으로 표시를 해두어 중복 배포를 피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땀을 흘리고, 자료 배포를 마치고 서둘러 직장으로 돌아가면 정말 땀에 흠뻑 젖습니다. 혹독한 겨울에는 때때로 얼굴에 성애가 가득하고 속눈썹에도 서리가 내립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매일 이렇게 해왔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견지할 것입니다. 비록 조금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대법제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루하루는 사부님께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고 바꾸어 오신 것으로, 천금만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중생이 구원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정말 나태해질 수 없습니다.

진상 지폐를 사용하는 것 역시 진상을 전파하는 좋은 방식입니다. 수년간 이 방면에서 저는 비교적 수월하게 해왔고, 돈을 쓸 때마다 진상 지폐 사용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1위

안, 5위안, 10위안 액면가의 진상 지폐를 사용합니다. 진상 지폐를 많이 쓰기 위해 매번 각 상품을 조금씩만 사고 여러 가지를 구매하며, 한 곳에서 사지 않고 여러 번 계산합니다. 이 방법을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매우 유용했고, 상인들도 모두 받았습니다.

대담하게 진상을 알리다

저는 법을 외움으로 저 자신을 법 속에 녹아들게 했고, 매일 법 속에서 저 자신을 바로잡고, 매일 법 속에서 저 자신을 정화하고, 매일 법 속에서 엄격하게 저 자신을 요구했으며, 매일 법 속에서 저 자신을 굳건히 했습니다. 조금씩의 진보가 날마다 쌓여 저에게 스스로를 돌파할 용기를 주었고, 낯선 사람에게 진상을 알릴 정념을 주었습니다. 법을 외우기 전에는 아주 잘 아는 사람에게만 감히 진상을 알렸고, 가족 및 친척에게만 감히 말했습니다.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도 감히 말을 걸 수 없었고, 항상 스스로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여름, 여동생이 병이 나서 성(省)에 있는 병원에 수술을 하러 갔고 제가 간호하러 갔습니다. 같은 병실의 아주머니는 집안의 큰오빠가 간호하러 왔습니다. 두 환자가 동시에 수술실로 들어갔고, 저와 아주머니의 큰오빠는 병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어 큰오빠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다가 파룬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과 중국공산당(중공) 악당이 대법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파룬궁을 안다고 했고, 퇴직 전 직장에서 파룬궁을 전담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탈당하셨습니까?”라고 물었고, 그는 “안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저와 대화를 멈췄습니다.

께서 보호해주셔서 우리는 순조롭게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니 인근 현(縣)에서 온 수련생들도 만났습니다. 천안문을 지날 때 시골에서 온 부부 수련생이 납치되는 것을 봤습니다. 설날에 무엇 하러 왔겠습니까, 파룬궁수련생인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추위를 타서 낡은 솜옷을 입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온 사람처럼 보여서 저 역시 꽤 걱정이 됐습니다. 두렵기는 했지만 법을 실증하러 올 수 있었다는 마음에 기뻐했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이 연락을 도와줘서 저녁에는 우리가 머물 숙소를 구했습니다. 그때는 지치고 추웠으며 열까지 났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 잠시 쉬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수련생이 이곳은 안전하지 않으니 다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면 검문에 걸릴 수 있어서 건거나 작은 삼륜차를 타야 했습니다. 우리는 춥고 지쳤지만 만약 다른 일이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신성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견뎌냈습니다. 선달그믐 한밤중에 우리는 베이징 근처의 작은 길을 걸으며, 정말이지 “백 가지 고생 한꺼번에 내리거니”(홍음-마음고생)를 겪었지만, 사부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한 장소에 도착해 잠깐 누웠다가 아침이 돼 다시 일어나 천안문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협력하던 수련생이 어떤 수련생에게 현수막이 없는 것을 보고는 제 현수막을 그 수련생에게 주고 저에게 전단 배포를 맡겼는데, 전단 배포는 현수막을 치켜드는 것보다 위험했습니다. 저는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고려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타고 갔는데 마음이 좀 두려웠지만 두려워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안문 앞의 인파가 가장 많은 정류장에서

고,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며, 조급함에 울기만 했습니다. 사부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당시 제 가정 형편은 마치 저 없이는 안 될 것처럼, 집안일을 첫자리에 놓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래선 안 돼! 이렇게 좋으신 사부님, 이렇게 좋은 대법, 사부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대법이 모함을 당했는데, 작은 가정 때문에 대법제자가 사부님께서 세간을 행하시는 것을 돕는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 베이징에 가서 법을 수호하는 것은 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궁리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집안의 돈을 관리하지 않아서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가정 외에 오빠도 제게는 압력이었는데, 오빠 중 한 명이 공장 간부였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는 친척 중에 파룬궁을 연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베이징에 가면 직위를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너 절대 가면 안 된다. 네가 가면 네 오빠 간부직에서 쫓겨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지만 역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시 사부님이 중요하고 법이 중요했기에 저는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2000년 선달그믐 아침, 저는 수련생 한 명과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기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사부님을 위해, 대법을 위해 공정한 말을 할 수 있게 됐으니 마음에 품었던 소원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하니 다른 수련생들도 만났습니다. 기차에 오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매우 무서웠는데 기차에 탈 때도 검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바르고 사부님

나중에 우리가 퇴원 수속을 밟을 때 저는 일부러 그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그에게 중공 악당의 사악함,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해 폭리를 취하는 일, ‘천안문 분신’은 조작된 것임을 말했습니다.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가 임박했으니, 중공의 당·단·대 조직을 탈퇴해야만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서 인연으로 만나게 됐는데, 곧 퇴원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해 당신의 평안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저는 당신을 구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자책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위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큰오빠가 시원하게 “탈퇴하겠습니다”라고 동의했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이 구원된 것입니다.

여동생이 입원한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여동생이 잠들었을 때 복도를 돌아다니며 인연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인연 있는 사람을 보면 저는 스스로에게 ‘용감해져라’라고 격려하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며칠 동안 총 10명 정도가 탈퇴했습니다. 여동생이 “언니, 정말 대단해. 어디를 가든 언니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난 잘 못하고, 이제 막 스스로를 돌파했을 뿐이야. 더 열심히 스스로를 돌파해 더 잘할 자신이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돌파하다

법을 외운 후 저는 정진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법공부를 했고, 매일 《전법륜》 한 강(講) 외에도 다른 법을 외우고 사부님의 각 지역 설법을 시간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배웁니다. 저는 제가 법을 얻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어찌 사부님의 많은 설법을 마치 배운 적이 없는 것처럼 느꼈는지 부끄러웠

습니다. 저는 한 권 한 권 법공부를 했고, 배워도 배워도 부족했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사존의 위대함, 사존의 자비, 사존의 광활한 홍은(洪恩)은 저의 시야를 여러 번 흐리게 했습니다. 법공부를 많이 하고 법공부를 잘하니 저의 정념이 굳건해졌고, 저는 점차 두려운 마음을 돌파하고 두려운 마음을 제거했습니다.

올해 5월 13일, 제가 사는 시(市)에서 여러 명의 대법제자가 중공 악당에게 납치됐습니다. 이 수련생들은 서로 알지 못하고 연락도 없었으며, 모두 다른 파출소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오랜 시간 추적한 후에야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중 납치된 수련생 한 분은 저에게 자료를 가져다주는 수련생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접촉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구세력의 박해를 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제 주변에서 발생했으니 반드시 저에게 수련으로 제거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안으로 찾아야 하고, 반드시 근원을 깊이 파헤쳐서 진실하게 안으로 찾아 그것을 제거하고 없애야 합니다. 저는 최근의 일사일념을 걸러내고, 대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즉시 바로잡고 제거했습니다.

이 일이 법을 외우기 전에 발생했다면 저는 아마 즉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다시는 자료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동안 멈추고 제 감정을 안정시킨 후에야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법을 외운 것과 이 기간에 계속된 법공부는 저에게 즉시 구세력의 안배와 박해를 단호히 부정하고, 정념을 많이 발하고, 안으로 많이 찾으며, 정진하는 것을 유지하고, 느슨해지거나 나태해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생

(悟性)도 괜찮은 편이어서 ‘이것은 사부님께서 내보내주시는 병업이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금방 나왔습니다. 그때 메스껍기도 해서 메스꺼리면 바로 토했지만 밥 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괜찮아지면 금방 좋아졌습니다. 반년 후, 제 몸은 병 없이 가벼운 상태가 됐습니다.

저는 기뻐하며 여기저기 대법의 아름다움을 알렸습니다. 우리 공장 구역에 한 동료가 있었는데, 연공 후에 열이 나자 그는 연공 전에는 열이 안 났는데 왜 연공을 하니 열이 나느냐며, 배우지 않겠다고 해서 대법과 인연이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그를 만나면 저는 “오빠, 저 보세요. 제가 연공하고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라고 말합니다. 어떤 동료는 농담으로 “당신 좀 봐, 공장에서 돈 쓸 때는 병이 나더니, 지금은 자기가 돈 쓰니까 병이 없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맞아요. 공장에서 돈 쓸 땐 제가 병이 났죠. 지금은 왜 나왔을까요? 저는 대법을 배워서 나왔어요. 만약 대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저는 일찍 죽었을 거예요. 오빠도 배우세요. 대법을 배우면 오빠도 좋아질 거예요.”

3. 베이징에 가서 법을 수호하다

1999년 7·20 사악한 박해가 시작된 후, 대법제자들이 계속 베이징에 가서 법을 수호했습니다. 생사를 내려놓은 수련생들의 감동적이고 눈물겨운 거사는 사악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저는 수련생들이 기쁘고 감동적이었으며, ‘사부님의 제자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법제자들은 모두 베이징에 가서 법을 수호하고, 사부님께서 세간을 행하시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지만 감히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우 조금했

해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다행히 대법을 얻다

저는 몸이 좋지 않아 기공도 적잖이 배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동료가 저에게 ‘대법은 좋고, 대법을 배우면 신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심지어 농담으로 “와, 내가 신으로 수련 성취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니”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연공하러 갔고, 시험 삼아 해보자는 마음으로 대법 서적을 보면서 사부님 설법 녹화 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사부님 설법을 듣는 것이 특히 좋았고 이 대법이 어찌면 이렇게 좋은지 감탄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기쁘기만 했고 갓 법을 얻었을 때의 그 즐거운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근처 대학 캠퍼스에 있는 연공 장소에 가서 연공했는데, 남학생 두 명이 공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캠퍼스에는 꽃이 피어 있고 환경이 매우 좋아서 제 기분도 무척 좋았습니다. 나중에 법을 배우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 공장 구역에도 연공 장소가 생겼습니다. 수련생들은 아침에 함께 연공하고, 만나면 자신이 혜택을 본 신기한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파룬파파 수련을 시작하자마자 이전에 배우던 기공과는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듣는 것도 좋고 배우는 것도 좋았는데, 사부님께서도 제 병업을 밖으로 밀어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아무리 아파도 열이 나지 않았습니다. 직장 병원에는 열이 나지 않으면 병가를 내주지 않는 규정이 있어서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열이 나지 않아 병가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공을 시작하자마자 열이 났습니다. 난생처음 열나는 기분을 알게 됐는데 뼈마디까지 쭈셨습니다. 당시 저는 법공부를 중요시했고 오성

각하지 않습니다. 안전은 사부님께서 주신 것이고 대법이 주신 것입니다. 오직 법공부를 많이 하고 법공부를 잘하며, 법 속에서 사람의 마음과 집착심을 수련으로 제거하고, 시시각각 진선인(眞·善·忍)으로 엄격하게 자신을 요구해 사악함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책임자는 즉시 저에게 또 다른 자료 제작 수련생을 연결해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계속해서 중생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법은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의 날들 동안 저는 반드시 계속 법을 많이 외우고 법을 잘 외우며, 정진하고 실질적으로 수련하고 분발해 따라잡아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보답하겠습니다.

만약 잘못 쓴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지적을 바랍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중앙 국유기업 체제 내에서 동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안녕하세요!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세
요!

저는 1999년 이전에 법을 얻었지만, 속인 속의 명리정(名·利·情)에 미혹돼 2003년이 돼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파룬파파(法輪

大法, 파룬궁) 수련에 들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년간의 수련 속에서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인연 있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일찍이 사부님의 가족이었다는 법을 설법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구하고 싶었고, 제 동료들도 포함됐습니다.

수련 속에서 끊임없이 법공부를 하고 명혜망 문장을 보며 수련생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최근 몇 년에야 비로소 이전에 제가 ‘무턱대고 따르는’ 일욕심을 점차 인식하게 됐고, 쟁투심, 남보다 뛰어나려는 마음, 대립심,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마음, 자신을 실증하려는 마음 등 사람 마음을 찾았습니다. 제가 집착심을 내려놓고 심성(心性)이 제고됨에 따라, 한때 진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였던 일부 중생이 마침내 사부님의 자비로운 안배하에 진상을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이 생명들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저는 사부님의 크나큰 자비와 제자에 대한 보살핌, 일깨워주심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직장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탈당

제 직장은 중앙 국유기업 체제 기관에 속하며, 직장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이름은 시원(熙雯, 가명)입니다. 약 8~9년 전, 경찰이 직장에 와서 소위 저를 소환하려 했을 때, 시원은 상사의 지시로 경찰과 함께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당시 경찰이 저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는데 그녀는 그곳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쟁투심과 남보다 뛰어나려는 마음이 매우 강했지만,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정념(正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 핏줄이 서는 게 보이면 한 번 오고, 그런 증상이 없으면 오지 마세요.” 약 가루를 먹은 후 정말 귀에 핏줄이 서는 것이 보여서 다시 한번 다녀왔더니 제가 나왔습니다.

셋째 이모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릴 때 엄마를 참 많이 고생시켰어. 1년 내내 병을 앓아서 집안이 다 거덜 나고, 옷도 못 입고 보자기 조각을 걸치고 다녔지. 설에도 고기 한번 못 먹었단다. 너는 커서 꼭 엄마에게 효도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미안한 일이야!” 저는 가끔 ‘우리 가족은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이럴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먹는 것까지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었습니다. 1962년 어려웠던 시절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고구마 줄기 같은 것을 먹었지만 어머니는 제 몸이 약하다고 어떻게든 좁쌀을 구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20세쯤 공장에 출근하기 시작했을 때 또 혈붕(血崩)이라는 병에 걸려 생리 때마다 하혈을 심하게 했습니다. 한번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2.5g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상 수치는 11~15g이고, 10g 미만이면 빈혈인데, 저는 또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1400ml의 피를 수혈받았는데 열 명이 넘는 사람의 피를 받았습니다. 하혈이 심해서 저는 현에 있는 병원들을 돌아가며 입원했습니다. 제가 회복된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당신을 봤을 때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당신이 살아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몸이 줄곧 좋지 않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자라서 몸도 마르고 왜소했습니다. 수련 후에야 비로소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 일찍부터 제자를 보살피시고 제 목숨을 구

니다. 저는 그에게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오직 대법만이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알려주자 그는 아주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그 길을 지나갈 때 몸에서 금빛으로 반짝이는 불광(佛光)이 났어요. 사실 아주머니의 사부님께서 아주머니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늘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가 다시 살곤 했는데, 그것도 우리 사부님께서 구해주신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바로 아주머니의 사부님께서 구해주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태어난 후 매일 병을 앓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배가 부푸는 병에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댔고 바짝 말라서, 저를 들쳐 업고 병원에 가는 게 일이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부모님은 먹고 입는 것도 제대로 못 하였고, 설을 쇠기 위한 돈조차 없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적이 두 번 있었는데, 한번은 저를 이미 땅바닥에 내려놓고 시신을 쌀 짚자리까지 준비해 둔 채 숨이 끊어지기만 기다렸다가 버리려 했습니다. 그때 죽은 아이를 버리면 1위안을 벌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1위안을 벌려고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언제 죽는지 계속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무당도 찾아갔는데 저를 보더니 움직일 수 있게 됐고 다시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또다시 죽기 직전에 부모님이 저를 안고 현(縣)에 있는 유명한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저를 보더니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이쿠,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이제야 왔습니까? 이 아이는 가망이 없겠네요. 이렇게 합시다. 죽은 말이라도 살려봐야 하니 배에 주사 한 대 놓고 약 가루를 좀 싸줄 테니 돌아가서 먹여보세요. 귀

나중에 저는 시원에게 “경찰이 저를 납치할 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촬영했어야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듣고 나서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차례 시원의 사무실에 가서 그녀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했지만, 그녀는 모두 무감각하게 거절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업무상 가끔 마주쳤지만 모두 간단히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저와 그녀 사이에는 마치 두꺼운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마음속으로 그녀를 구하고 싶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저는 비로소 당시 제 마음이 얼마나 선하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시 시원은 이런 일을 전혀 겪어보지 못했고, 그녀는 아마 대법 진상을 전혀 몰랐을 것이며, 대법제자가 박해받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시 사실 매우 두려웠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몰랐으며, 단지 그 직위에서 일하면서 피동적으로 협력했을 뿐입니다. 저는 나중에 시원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녀에게 진상을 더 알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녀를 다그쳤는데, 이런 상태로 전하는 진상을 그녀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자 저는 마음이 매우 아팠고, 제가 어느 정도 그녀가 구원받는 데 장애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그녀에게 다시 진상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의 마음을 보시고 시원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배하셨습니다.

올해 설날 전에 저는 다시 시원에게 진상을 알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그녀의 마음을 열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녀에게 보였던 태도에 대해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그녀는 평소 매우 바빠서 저는 그녀에게 ‘우리는 원래 신이었다’(再次成爲神)라는 영화를 주면서 설 연휴에 보라고 했습니다. 그녀 역시 법을 위해 온 생명이니 그녀가 보고 깨달아 구원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저는 사무실로 시원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모로 부족했는데 제 부족함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상을 더 많이 알아보세요. 저는 정말 우리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사실 사람은 원숭이가 변해서 된 것이 아니며, 사람은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신이었다’라는 영화를 드릴 테니 한번 보세요.” 제가 USB를 그녀에게 건넸지만 그녀는 받지 않고 고개를 돌려 컴퓨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일 보세요. 이 영화는 보시고 갖고 싶으면 가지세요. 아주 보기 드문 거거든요. 갖고 싶지 않으면 부담 갖지 말고 저에게 돌려주셔도 돼요.” 저는 그녀의 책상 위에 USB를 놓고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제가 떠날 때 그녀는 여전히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출근해서 사무실 건물에서 시원을 만났을 때 저는 그녀의 표정이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그녀의 표정은 밝았고, 더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서 저는 그녀가 희망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루는 제가 다른 부서에 불일이 있어 갔는데, 제가 찾으려던 사람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맞은편 동료가 “아마 화장실에 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방에 가봤습니다. 제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상)

—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결정하신다 —

글/ 중국 허베이성 대법제자 (본인 구술, 수련생 정리)

[명혜망]

자비로우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6년 5월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여성 대법제자로 올해 73세입니다. 29년간의 수련 과정에서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 시시각각 제자를 보살펴주시고 가지(加持) 해주셔서, 제자는 험난한 고비들을 하나하나 넘어오며 조사정법(助師正法)하고 중생을 구하는 신성한 사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저의 수련 체험 일부를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하며, 저의 체험을 통해 박해를 두려워하는 수련생들에게 조금이나마 귀감과 격려가 돼, 하루빨리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함께 대법제자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며, 사부님을 안심시켜 드리는 대법제자가 되기를 더욱 희망합니다.

1. 사부님께서 목숨을 여러 번 구해주시다

여러 해 전 어느 날, 저는 큰 상가 근처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바로 귀인을 찾고 싶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숙명통(宿命通) 공능이 열려 있었는데, 인류에게 큰 재난이 닥칠 것을 알고는 몹시 두려워하며 그를 구해줄 귀인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제가 바로 당신의 귀인입니다”라고 말했습

고 넓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맺음말

우주 정법은 우주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며, 천체 속 모든 신불(神佛)은 그 층차가 아무리 높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일입니다. 사존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대법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금 사존과 함께하며,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하는 우리의 신성한 직책을 이행하고 정법시기 대법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숭고한 영광이며 비할 데 없이 신성한 일이라, 하늘의 모든 신들도 부러워 마지않습니다.

사부님께서 거대한 감당하심으로 종결 시간을 여러 차례 연장하셨는데, 이는 제자들을 이루셔 우리에게 다시 위대한 신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가 바르게 걷는 이 길은 미래에 참고가 되도록 남겨주실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보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위치를 바르게 잡고,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는 주인공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신(神)의 일면이 빨리 부활되게 해, 진정으로 신의 면모를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사존의 정법 노정을 바짝 따르며, 자신 속의 바르지 않은 것을 포함해 일체 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잡고, 마지막 수련의 길을 잘 걸어야 합니다.

사존께서 베푸신 자비로운 고도(苦渡)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존께 엎드려 절을 올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옆방에 있을 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저는 얼른 문 쪽으로 가서 제가 찾던 사람이 돌아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양쪽을 둘러봤는데, 마침 시원이 자기 사무실 문을 살짝 열고 머리를 내밀어 밖을 내다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둘은 눈이 마주쳤고, 그녀도 아마 자신의 당시 행동이 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는지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서 확인하려고요.” 저는 이것이 그녀의 명백한 일면이 저를 찾는 것이며, 사부님께서 안배 해주신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제가 찾던 사람도 돌아왔는데 저는 그녀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원의 사무실로 가서 그녀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탈퇴하세요. 누가 집권하든 하늘의 뜻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큰 인연인가요. 일은 일일 뿐이고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생명을 책임져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탈당에 동의했고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대립심을 제거하니 당무(黨務) 사무실 동료가 삼퇴하다

자치(佳琦, 가명)는 우리 직장의 중국공산당(중공) 조직(당, 단)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이전에 경찰이 직장에 와서 저를 납치하려 했을 때, 그녀도 현장에 있었고 경찰이 저를 강제로 납치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제가 바닥에 앉아 가지 않으려 하자 몇몇 경찰이 제 팔다리를 잡아끌고 저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자치는 경찰에게 “일단 그녀를 놓아주세요. 우리가 다시 그녀와 이야기해 볼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경찰들은 행동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에는 저와 직장 동료 몇 명만 남았습니다. 자치는 제가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제게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가 봐야겠어요”라고 말하고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이전에 저와 자치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한 번 만났을 뿐 그다지 친하지 않았고, 그녀는 직장에 온 지 얼마 안 된 대학원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줄곧 그녀에게 진상을 알리고 싶었지만 적절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업무상 접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녀가 어떤 보고서나 자료가 필요해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비록 대법 수련을 다년간 했지만 많은 사람 마음을 아직 제거하지 못했고, 특히 중공 악당에 대한 대립심이 그랬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직장 내 중공 부서의 일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수련을 통해 수련생들의 교류 문장을 보면서, 제 심태가 올바르지 않고 이 박해의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록 중공 관련 일을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의 업무일 뿐이고 그들 역시 법을 위해 이 세상에 온 생명입니다. 저와 그들은 이렇게 큰 인연이 있는데, 저는 그들의 업무 성격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지 않고 그들을 배척했으니 어떻게 그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대법 진상을 접하기 매우 어려운데 저는 도리어 이런 사람 마음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잃게 했습니다. 정말 사부님께 죄송하고 중생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게다가 많은 일은 본래 제 직책 범위 내의 업무였는데도 저는 모두 밀어냈으니 이것도 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법의 요구에 따라 어디에서든 좋은 사람이 되고 만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집착심을 버림에 따라, 직장 내 중공 부서에서 안배한 일부 업무를

왔고, 단지 그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표현은 그의 진정한 생명의 표현이 아니라 변이된 관념과 업력의 표현이기에 저는 그를 포기할 수 없으며,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게 진상을 명백히 알려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이후 장터에서 또 그를 만났을 때 저는 먼저 그가 진상 듣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사악한 생명과 요소를 해체하는 정념을 발한 후, 그를 사람 적은 곳으로 불러 진상을 알려줬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바뀌었고 매우 시원스럽게 진상 자료를 받았으며, 저에게 안전에 유의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출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생명이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 기뻐고, 더욱이 자비로우신 사부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대법제자는 모두 사존(師尊)께서 선택하신 생명이며,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각자의 아득히 먼 천체로부터 잇따라 인간 세상에 왔습니다. 저는 수련생들과의 이 소중한 성연(聖緣)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비록 수련생들이 각기 다른 표현을 보이지만, 저는 오직 우리 각자 생명의 본성만을 보고, 수련생들을 존경하며, 서로 구원하고, 사악에게 간격과 박해의 이유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직 그들 생명의 본성만을 보고 사람의 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높은 층차 생명이고 대법 중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사부님의 대법이 저를 이루셨고, 저를 다시 빛으시어, 저를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며 업력으로 가득했던 사람에서, 남을 위하고 중생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 원망도 후회도 없는 대법도(太法徒)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부님의 크

몇 년 전 어느 저녁, 누군가 우리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파출소 경찰 두 명이 문밖에 서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댁에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집에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마디 말을 나눈 후, 그 젊은 경찰이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제가 제지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위법적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저희집에 온 것은 인연 있는 사람이기에 저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역시 대법제자가 구원해야 할 생명입니다.

저는 자비심을 품고 그들에게 대법 진상을 알려주었고 두 사람은 모두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떠날 때, 나이 더 많은 경찰이 좀 미안해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시는 댁에 오지 않겠습니다. 문을 열어 저희가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의 동문이 한 명 있는데, 향진(鄉鎮) 정부에서 일하며 장터에서 그를 몇 번 만났습니다. 제가 대법의 진상을 언급할 때마다 그는 매우 무례하게 저를 막았고, 몇 번이나 진상 알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장터에서 한 수련생이 저와 이 동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창이 떠난 후에 수련생은 저에게 이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진상을 알려줬을 때 그의 태도가 매우 난폭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전화로 신고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후에 동문에게 조금도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않

저는 더는 거절하지 않았고, 자치와도 어느 정도 업무상 교류가 생겼습니다.

제 심성이 제고되자 사부님께서 기회를 안배해주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다른 사무실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 방으로 돌아가는데, 자치가 마침 계단을 올라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계단 모퉁이에서 우리 둘은 마주쳤습니다. 저는 자치에게 “저 곧 업무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자치는 “정말 좀 아쉽네요. 동료들한테 당신과 일하는 게 정말 좋다고, 아주 순조롭다고 말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제게 얼마 전 체육 행사를 조직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복도에서 때때로 동료들이 계단을 오르내렸기에 저는 자치에게 작은 소리로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했고 자치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마구잡이로 하고 있어요. 업무도 전혀 모르면서 뭐든지 다 참견하고, 뭐든지 다 연관 지으려 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무슨 일이든 다 과장해서 정치 운동처럼 벌여서 사람들 모두 불안에 떨게 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저는 줄곧 자치가 오랫동안 중공 당무(黨務) 일을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가 돼서야 그것이 모두 저의 관념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분별심과 체면을 중시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직장 사장에게 진상을 알리다

직장 사장님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일했는데 아직 그에게 진상을 알리지 못했구나. 이 인연이 곧 끝나는데, 그가 구원받을 이 기회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은 평소 매우 바빠서 제가 그와 단독으로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중앙 국유기업 체제 내에서는 사람들의 자기보호 심리가 매우 강해서, 저는 일반적으로 동료들에게 진상을 알릴 때 그들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성격이 좋지 않아 욕을 잘했는데, 복도에서도 그가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욕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한번은 제가 업무 보고를 할 때,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사장님이 주변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가차 없이 질책했습니다. 질책하는 이유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고 저는 당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중에 법공부를 할 때, 그가 저의 지적받기 싫어하는 마음과 체면을 중시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장님을 공경하면서도 멀리했고, 정말 그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한 되도록 그를 멀리 피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저는 그가 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문자를 보내 할 말이 있어 사무실로 찾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쁘고 시간이 없다며 두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조급해졌는데 어느 날 발령 공문이 내려오면 그가 이곳을 떠날까 봐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지인이 아니고 집이 외지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제가 막 복도 문을 나섰는데 동료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가 저에게 방금 회의가 끝났다고 먼저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장님도 회의가 끝났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네, 지금쯤 막 사무실로 돌아가셨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저

차의 법으로 지도하지 못해 제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새 우주의 대법이며, 시작부터 우리를 매우 높은 층차로 밀어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정법수련의 근본을 틀어잡아야 합니다. 우리 신분을 진정으로 명확히 하고, 사람을 구하는 기점을 바르게 하며, 이기적인 본성을 바꾸어, 모든 것을 중생의 구원을 위해 해야 하고, 진선인(眞·善·忍) 표준으로 당면하는 일을 가늠해야 합니다. 진선인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참된 자아[眞我]가 한 것이 아니므로 승인받지 못합니다. 대법제자의 일념도 중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관계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대다수가 높은 층차의 신과 주(主)이며, 그들 세계의 무량 중생을 대표해 하늘이 두려워할 만큼의 담력을 무릅쓰고 세상에 환생하여 파룬따파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 세상의 번뇌에 빠져 본성이 가려져 있습니다. 사부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깨우고, 장차 그들을 이끌고 함께 새 우주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중생의 겉모습을 봐서는 안 되며, 그들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되고, 오직 그들 생명 본성만을 봐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사부님의 가족이며, 모두 고귀한 생명이며, 다만 인간 세상에서 맡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마음에 자비심을 내어 중생들이 다 고통받고 있다고 보면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자비는 거대한 에너지이며 중생이 구원받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변이된 관념과 각종 사람 마음의 집착을 해체할 수 있으며, 무작정 집착을 찾고 집착을 제거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해하는 특무(스파이)들의 복(福)을 벌써 다 철회하셨으며, 대법과 대법제자를 박해해 탐오의 명의로 잡혀 들어간 크고 작은 탐관오리들의 복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그 모두는 마땅히 대법제자가 대법을 실증하고 사람을 구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제가 이 점들을 인식한 후에 저의 가정 상황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모두 순탄하게 퇴직 수속을 마쳐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됐고, 아들도 순조롭게 대우가 괜찮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3년 전에는 저희가 기적적으로 새집을 구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추구해 얻은 것이 아니라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이 인간 세상에 나타난 한 가지 방식입니다. 대법을 수련하는 것은 복이 있으며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전후 변화는 저를 아는 사람, 이전에 저를 조롱하고 깔봤던 사람, 파룬궁 수련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어리석다고 말했던 사람의 관념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일종의 감탄과 존경심을 나타냈고, 다시금 그들에게 진상을 말할 때도 그들은 더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본을 틀어잡고 주인공이 돼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어떤 수련생이 수련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수련하고 수련해도 어떻게 수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각종 집착심이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아서 일부 수련생은 소침한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또 어떤 수련생은 오랫동안 고비를 넘지 못해 수련을 포기했고, 어떤 수련생은 병엽 가상으로 육신을 잃는 등으로,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데 큰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런 바르지 못한 상태가 나타난 수련생은 대다수가 여전히 개인 수련 상태에 머물러 있고, 높은 층

는 고개를 돌려 건물 안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 사장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몇 년간 저를 보살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대법을 수련하는 것에 대해, 기업 사장으로서 저를 보호해주셨습니다.” 그가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파출소에서 두 번이나 직장으로 저를 찾아왔지만 그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법 진상과 저 자신이 대법을 수련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그가 삼퇴하도록 원하는 것을 가지(加持)해주시기를 청했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했습니다. 떠날 때 제가 그에게 진상 USB를 하나 주자 그도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날 사장님의 평화로운 모습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다년간의 정법 수련 속에서 저는 사부님께서 매 순간 제자를 보살피시고 이끌어주심을, 그리고 파룬따파의 ‘법이 사람을 연마하게 하는(法煉人)’ 이치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거하지 못한 저의 사람 마음이 구원받아야 할 일부 중생을 아직 구원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매번 이럴 때마다 제자는 사부님과 중생께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저는 끊임없이 자신을 잘 수련해 더 많은 중생을 구하겠습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진상을 직접 대면해 알리며 체득한 수련의 깨달음

글/ 중국 대법제자 샤오용(小勇)

[명혜망] 저는 1999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기 시작한 대법제자입니다. 수련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자 중국공산당(중공) 사악한 정권의 파룬궁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법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고 실제 수련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큰길을 벗어났습니다. 다시 진정한 수련 상태로 돌아온 것은 여러 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저는 마음 깊이 후회하며 앞으로는 반드시 참된 대법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3년 무렵부터 저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 진상 자료를 전하고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 수련생에게 “진상 자료는 어떻게 배포하나요?”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인사하고 ‘책 보시겠어요?’ 하고 물어요. 본다고 하면 한 권 드리고, 안 본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간단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직접 대면하여 진상 자료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집을 나선 것 자체가 수련

처음에는 저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위협할까 봐, 신고당할까 봐 무서웠습니다. 매번 집을 나서기 전에는 다리가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 다. 가방 안에 있는 진상 자료를 보면서도 ‘이걸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마음을 다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두려움은 조금씩 열어졌고, 집을 나서는 것도

액의 벌금까지 물어야 해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박해받았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납치를 저지하기 위해 유랑생활을 하며 생활 보장이 없어 매우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떤 가족은 친척이 판결받을까 두려워서 여러 번 사악에게 협박당하고 돈을 갈취당해 가정생활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박해받은 중요한 원인 하나는 또 우리가 법리에 대해 분명하지 않아 사악이 틈을 타게 한 것입니다.

박해 초기에, 제가 대법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불법적으로 해고당해 경제적 수입을 잃고 생활이 한동안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법리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이익심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악이 저에게 경제적 박해를 가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 세력이 강제로 가한 박해를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개인 수련의 기점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나중에 저는 법 중에서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조성하신 것이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대법의 자원이므로 바르게 써야만 하며, 대법제자가 대법을 실증하고 사람을 구하는 데 써야지, 사악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대상으로 되서는 안 됩니다. 사부님께서 우리가 최대한 사회에 부합해 수련하기 바라시며, 대법수련은 과거처럼 재산이 하나도 없는 고행승의 형식이 아닙니다. 사부님께서 또 제자들이 부유해져서 세 가지 일을 잘할 능력과 에너지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주에서 가장 신성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며, 우리는 인간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지만 우리의 표현은 모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진상입니다. 사부님께서 대법제자를 박

저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제자는 오직 사부님과 대법의 관할이며, 어떤 생명도 소위 대법제자에 대한 시험을 끼어들어 배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동시에 저는 강한 정념을 받았습니다. ‘대법제자를 박해하고 중생을 파멸시키려는 사악의 망상적 음모를 철저히 해체한다!’ 저는 서둘러 수련생들과 법에 따라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었고, 곧 공동 인식을 이루었습니다.

수련생들은 모두 행동에 나섰고, 더욱 힘을 키워 발정념하여 사악의 박해 음모를 제거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수련생들은 법리에 대한 인식이 모두 어느 정도 제고되었습니다. 그 후, 사악이 명단을 확보했던 우리 수련생들은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모두 무사했고, 사악의 음모는 수포가 되었습니다. 제자는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는 일이 몇 차례 나타났지만, 법리의 지도하에 저는 늘 무사했습니다. 악당의 소위 민감한 날이나, 대규모 검거와 같은 소식을 들은 후에도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정법하고 계시며,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정법을 둘러싸고 움직이고 있으며, 사부님께서 원하시거나 배치하지 않으신 그 일체는 우리가 다 정념으로 제거합니다! 인간 세상은 대법과 대법제자가 사람을 구하는 큰 무대이지 사악이 행패 부리는 낙원은 결코 아닙니다.

대법제자에 대한 사악의 경제적 박해를 부정해야

중공 악당이 대법을 박해한 이 몇 년간, 중국 대법제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박해 외에도 경제적으로도 심각하게 박해받았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불법 판결을 받은 후 공직에서 파면당하고, 거

점점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막상 집을 나서고 나니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멀리까지 가도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길을 묻곤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시작한 뒤 ‘책 한 권 보시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또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상인에게 말을 건 다음 진상 책자를 한 권 건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의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진상 자료를 전하는 일도 훨씬 순조로워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밖에 나설 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모든 평범해 보이는 변화는 사실 사부님께서 제가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을 보시고, 좋지 않은 물질을 제거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진상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 것도 수련 중의 한 과정

직접 진상 자료를 전하다 보면, 사람들은 파룬궁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상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진상을 잘 말하려면 우선 자신이 진상을 깊이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혜(明慧)’ 간행물이 정말 괜찮다고 여겼기에 되도록 많이 읽으면서, 제가 전하는 진상 책자의 내용을 잘 알게 됐고, 동시에 진상에 대한 인식도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말이 막히지 않고,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파룬궁’에서는 파룬따파가 처음 세상에 전해질 당시 체육총국과 기공연구회 등이 수만 명의 수련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파룬궁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 효과가

97.9%에 달했다는 사실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진상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천지창생’ 특별호에서는 중공의 폭정과 전통문화 파괴, 거짓 선전의 실상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세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대법 진상 영상이나 수련생들의 교류 문장을 자주 보고 들으면, 자신이 진상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글을 쓰는 지금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실 진상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수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법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지고, 법에 대한 믿음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때로는 진상 책자 속의 한 수련생이 법공부 후 신체와 정신이 변화된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 깊이 감동했고, 자신과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전통문화 이야기 한 편을 읽고도 제 안의 변이된 관념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중공 악당의 죄악을 폭로한 글을 읽으며 제 사고방식의 왜곡된 부분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체험들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삼퇴를 원하는 방식의 변화 또한 수련의 한 과정

진상을 말할 때는 단순히 사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삼퇴(중국공산당의 당·단·대 조직 탈퇴)를 권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사람을 설득하는 데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남을 이끄는 힘이 부족했고, 평소 성격이 단순하고 눈치가 없는 편이라 사람을 설득하거나 분위기를 맞추는 데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대면하여 진상을 말할 때, 이 점이 저에게 큰 약점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상을 ‘말하는 것’은 비교적 쉬웠지만, 상대방이 이해하고 실제로 삼퇴를 선택하도록 이끄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이 없었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의 법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변이(變異)된 관념은 그것들로 하여금 역사상 신(神)에 대한 박해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이미 고층생명이 내려와서 사람을 제도하는 하나의 범례(範例)가 되었다. 이것이 어찌 될 말인가? 이 자체가 바로 부패이다! 한 신(神)이 내려와 사람을 제도하는데, 사람이 신(神)을 십자가에 못으로 박아 놓았으니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인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죄를 갚고 있다.”(도항-북미대호수지구법회 설법)

저는 법을 통하여, 과거에 사람을 구원하던 신이 오히려 사람에게 박해받는 이 바르지 못한 법을 사부님께서 이미 바로잡으셨음을 이해했습니다. 대법제자는 대법에 의해 갱신된 생명이며, 사부님을 따라 사람을 구하고 있으므로 사악에게 사주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금 박해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또한 중생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은, 본 지역에서 중요한 항목을 맡고 있던 한 수련생이 사악에게 납치됐고, 이 일은 본 시(市) 공안국에서 ‘대형 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몇 개 시 공안국이 연합해 참여했고 심지어 상급 부서의 우두머리도 참여했습니다. 수련생은 거대한 압력 아래서 마음에 없는 말로 본 시의 여러 수련생을 말했는데, 저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긴장됐고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알려주기를, 그 상급 부서의 우두머리가 명단에 있는 수련생들을 빨리 전부 잡아들이라면서 몹시 다그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은 후 처음에는 마음이 약간 흔들렸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것이 아니므로

의 음모를 해체하여 사라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한 수련생이 자신이 박해받은 경험을 폭로하는 글을 명혜망에 발표한 며칠 후 국보 경찰에게 납치됐습니다. 사악은 혹독하게 고문하여 누가 그녀에게 글을 써주었고, 누가 인터넷에 폭로하게 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그녀는 심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를 말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일을 알지 못했지만 다음 날 제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출해 일을 처리하는 길에 날씨가 갑자기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였습니다. 저는 나쁜 것이 저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주의식(主意識)은 매우 맑았으며, 즉시 강력한 일념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사부님께서 선택하신 정법시기 대법제자이며,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지 사악에게 박해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로지 나의 사부님 관할에 속하며, 구세력이 중생을 파멸시키는 대가로 나에게 소위 시험을 가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며, 또 중생이 구원받는 것을 교란하는 일체 사악의 음모와 형식을 철저히 해체하고 제거한다.’ 저는 달힌 채로 수련하지만 이 일념의 에너지가 지극히 크고 산마저 쪼갤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법의 위력입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바로 제 곁에 계시며, 저를 가지하고 보호하심을 알았고, 저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수련생이 자발적으로 저의 발정념을 도와줬고 이 일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났습니다.

그때는 박해가 매우 심각했고 사악이 매우 기승을 부렸습니다. 자료 거점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련생은 사악이 중점적으로 박해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제 생각 속에는 박해받는다는 개념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한 가지 방식을 정했습니다. 기본적인 진상을 말한 다음, ‘장자석(藏字石)’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하늘이 중공을 멸한다(天滅中共)’는 내용을 전하며 삼퇴를 권하는 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방식을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삼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진상을 말한 후 “요즘 인류의 도덕이 타락했는데, 만약 신께서 정말 존재하신다면 인류가 재난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물으며 삼퇴를 권했습니다. 이렇게도 한동안 효과가 있었지만, 다시 점점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수련생들과 교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 또한 수련이었습니다. 하나의 말하기 방식이 굳어지고 습관처럼 돼버리면, 입으로는 술술 나오지만 ‘진정으로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진상을 다 말했는데도 상대가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라고 하면서도 삼퇴는 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삼퇴를 권하는 방식은 그때그때 자신의 수련 상태와 체득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佛法)을 박해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법리에 깊이 체득했을 때는 그 내용을 자연스럽게 진상 속에 녹여 삼퇴를 권했고, ‘불법과 박해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불법의 편에 서야 한다’는 인식이 깊어졌을 때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진상을 전하는 모든 과정—두려움을 이겨내고 집을 나선 일, 진상에 대한 이해를 깊이는 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말하기 방식을 끊임없이 조정하는 일—이 모두가 제게는 곧 수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법을 잘 배우면, 밖에 나가 진상을 전할 때 정념이 더욱 강해진다

사부님께서는 “법은 기초이고 대법제자의 근본이며 일체의 보장이고 사람에서 신으로 걸어가는 탄탄대로(通途)”(정진요지3-오스트레일리아 법회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진상 알리기 일을 꾸준히 잘하려면, 자신을 잘 수련하는 것이 그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주 밖에 나가 진상을 전하는 수련생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을 잘 배우고 정념이 강해야만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ですよ. 왜냐하면 외부의 교란을 물리치고, 세인들 뒤에 있는 사악한 요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강대한 정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꾸준히 단체 법공부에 참여했고, 수련생들과 함께 법을 외웠습니다. ‘전법륜(轉法輪)’은 여러 차례 외웠고, 《홍음》에서 《홍음 6》까지 대부분 여러 번 외웠습니다. 지금도 법공부 팀 수련생들과 함께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사부님께서 새로 발표하신 경문들도 수련생들과 함께 여러 번 외웠습니다. 이렇게 외운 법이 상당히 많지만 어떤 것은 결코 잊히지 않고, 또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도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언제든지 법을 외울 수 있습니다.

높은 위치, 즉 우리 생명이 태어난 곳으로 밀어 올리셨고, 정법수련 중에서 대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7.20’ 이후, 우리는 개인 수련에서 전부 정법수련으로 전환됐습니다. 법공부 잘하여 자신을 잘 수련하며, 발정념으로 사악을 제거하고, 진상 알려 사람 구하는 이 세 가지 일은 사부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며, 모두 대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하는 이 주된 맥락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에 위배되는 것은 모두 사부님의 배치가 아니며, 우리는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부님께서 정법하심은 우주를 바르게 하는 것이며, 바르지 못한 일체의 법을 바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신께서 더는 사람에게 박해받지 않는 법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은 일의 재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제자가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것은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원만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 대극의 주인공이며, 중생과는 구원자와 피구원자의 관계이지, 박해자와 피박해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대법제자는 세상에 와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지 박해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오직 대법과 대법제자를 존경해야만 대법에 의해 미래의 새 우주로 구원될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납치하고 박해하려는 사악의 음모를 해체해야

법리에 대한 인식이 끊임없이 승화함에 따라 저의 정념은 갈수록 강대해졌고, 이전에 여러 차례 박해받아 남은 그림자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돌발적인 사건에 직면했을 때 저는 바른 법리로 지도하고 확고한 정념으로 제거함으로써, 중생을 파멸시키려는 사악

수련의 법리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대법제자’라는 명칭을 저는 단지 입으로만 말했을 뿐, 이 명칭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고,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위치와 일하는 기점을 바르게 잡지 못했고, 대법제자와 중생 관계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개인 수련과 정법수련을 혼동하여 분명히 하지 않았고, 정법수련의 심층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으며, 오랫동안 개인 수련에 머물러 자신을 박해받는 위치에 두고도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많은 수련생이 반복적으로 박해받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진지하고 체계적인 법공부를 통해 저는 정법수련에 대해 일정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법제자는 사부님께서 아주 먼 옛날에 선택하신 존재로서 우주 속의 특수한 생명체이고, 매우 높은 각기 다른 천체에서 온 주(主)와 왕(王)이며, 각자의 천체에 있는 무량한 중생을 대표해 세상으로 내려와 새 우주의 법에 동화하고 있다. 동시에 사부님을 도와서 정법하고 중생을 구원하는 신성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근원이 높고, 근기(根基)가 크며, 책임이 크니, 성취하는 과위(果位)도 높다. 우리는 수천수백 년 동안 윤회 환생하며 사부님을 따라 오늘날 대법이 널리 전파되도록 각종의 신전문화(神傳文化)를 다졌다. 개인 수련의 원만은 목적이 아니며, 중생을 구하는 것이 역사에서 대법제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다.’

저는 법 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1999년 ‘7.20’ 이전에 법을 얻어 수련한 것은 개인 수련 단계였으며, 만난 모든 것은 개인 제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진수(眞修) 수련생들을 가장

수년간의 법공부를 통해 저는 법에 대한 인식이 끊임없이 깊어졌습니다. 이 점은 진상을 말하는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까다로운 질문을 받더라도 결코 당황하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늘 명확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겉모습에 끌리거나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진상 알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저의 개인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때때로 일로 바쁘거나, 집안일이 많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수련 상태가 좋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 조정하는 것은 괜찮지만 반드시 스스로에게 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즉,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진상 알리기를 멈추게 되면, ‘밖에 나가지 않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욱 자신을 느슨하게 대하게 됩니다. 결국 오래도록 자신을 방임하게 돼, 나중에는 법공부만 하고 진상을 말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법조차도 제대로 배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진상을 전하던 중에 진상을 모르는 마을 간부에게 붙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스쿠터 열쇠를 빼앗고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 일이 저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그 후로 진상 알리기가 점점 줄어들었고 ‘상태가 좋지 않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게다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나쁘면 박해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을 완전히 느슨하게 놓아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중독처럼 몇 시간씩, 심지어 밤새도록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수련 상태는 말할 것도 없

었습니다.

그 후 다시 진상을 전하러 나설 때는 마음속에서 큰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이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부님께 청했습니다. “사부님, 제자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지만 정념이 부족하고 집착심이 많습니다. 제자의 정념을 강화해 주시고, 중생을 대할 때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며, 정념이 충만하여 중생이 진상을 듣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그 후 저는 수련생들과 함께 짝을 지어 진상을 알리러 나갔습니다. 함께 나가니 정념이 한결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진상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고 있구나’라는 성스러운 감정이 들었고, 그로 인해 제 안의 정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사부님의 가지(加持) 속에서 저는 꾸준히 진상을 알리러 나갔고, 그 과정에서 점점 정념이 강해졌습니다. 다시 수련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고 수련 상태도 점차 좋아져 선순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수련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진상 알리기를 멈춘 수련생들이 있다면 꼭 이 한 걸음을 내디뎠으면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서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어둠이 걷히며, 밝은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진상을 말할 때 삼퇴를 최종 목표로 삼지 않다

제가 대면하여 진상을 알릴 때 가끔 삼퇴 숫자에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되도록 많은 중생이 구원

불법적으로 거의 20일간 감금되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어머니 댁에서 한 친척분이 매우 엄숙한 어조로 제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온종일 동분서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룬궁이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고, 파룬궁은 이렇고 저렇고 좋다고 말하는데, 정작 자네는 자신을 구할 수 없어서 경찰이 잡아가면 그대로 잡혀가는군. 감옥은 죄수가 있는 곳이고 나쁜 사람이 있는 곳인데, 좋은 사람이 감옥에 갈 수 있을까? 자네를 보면 우리는 파룬궁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자네야 여러 번 잡혀가는 것을 개의치 않겠지만, 우리 온 가족들은 정말 건널 수 없어. 자네는 참으로 자신을 잘 반성해야 하며 다시는 잡혀가서는 안 돼.”

친척의 이 말은 무거운 망치처럼 저를 일깨웠습니다. ‘맞아! 내 모습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믿게 할 수 있겠는가?! 누가 감옥에 잡혀가기를 원하겠는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대법을 실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법에 먹칠했으며, 중생이 구원받는 데 역효과를 냈으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친척의 입을 빌려 저를 일깨워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가지(加持)하시어 저에게 존재하는 많은 부족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법공부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일이 생기면 일 자체만 가지고 논하고, 눈은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밖으로만 보며 실질적으로 수련하지를 않았고,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악(邪惡)이 저를 박해하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문제가 발생한 가장 주요한 한 가지 원인이 정법

그 목적은 함께 정진하여 마지막 수련의 길을 바르게 걷고자 합니다. 만약 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이 바로잡아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대법제자는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지 박해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저는 1999년 이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이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20여 년간 수련해오면서 사부님과 대법에 대해 줄곧 굳게 믿었습니다. 대법이 박해받던 초기에, 저는 몇 차례 베이징으로 상경해 청원하였고 대법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중공) 악당에게 여러 번 납치당했으며, 불법적으로 구치소, 구류소, 세뇌반에 감금당했고, 불법적인 강제노동과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크게 중시하지 않았고, 자신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으며, 이 박해가 대법과 사람 구원에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저의 사고방식은 줄곧 ‘사부님은 가장 높고 가장 바르시며, 대법은 가장 좋고 가장 신성하므로, 나는 반드시 사부님을 따라 대법을 끝까지 굳게 수련해야 한다’라는 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부님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대법에 대한 인식은 줄곧 감성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대법 수련생이라기보다 평상인 중의 영웅호걸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2007년, 저는 마지막으로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납치돼 다른 지역 세뇌반으로 끌려갔고,

받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도록 돕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번도 중공 악당 조직에 들어가 본 적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 한편에서 웬지 모를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마치 삼퇴 숫자를 더 늘리지 못한 것이 아쉬운 듯한 마음이었지요. 이 집착을 깨닫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자.’ 진상을 말할 때는 오직 말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중생이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진상을 말할 때 기본 진상을 많이 전하고, 마지막에 삼퇴를 권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쳐 기적이 일어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제가 잘 아는 대법제자가 선행을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때로는 대법의 법리에서 ‘안으로 찾기, 살생하지 않기,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함, 덕을 중시하며 마음을 수련하기’ 등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또 때로는 파룬따파가 불법 수련임을, 선악유보(善惡有報)의 천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삼퇴를 하든 하지 않든 저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후에도 그들의 마음속에 파룬따파의 아름다운 인상이 남기를 말입니다.

한번은 몇 명의 환경미화원들이 풀밭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인사하며 “책 한 권 보시겠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파룬궁 진상임을 알고 약간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그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대법의 아름다움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한 파룬궁수련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그녀의 수련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반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함께 법공부를 하고 연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가족이 이렇게 변했나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병원에 가도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의사도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마음을 담아 외우라고 권해드렸죠. 처음에는 어머니가 화를 내셨지요. 진상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 지금도 힘들고 방법이 없잖아요. 한번 외워보면 어떨까요?’라고 말하니, 이치에 맞다 싶으셨는지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0여 분 만에 소변과 대변이 잘 나오고 온몸이 편안해지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 아버지 모두 함께 법공부를 하며 연공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후, 처음에 거절하던 몇 명의 사람들도 진심으로 “파룬궁은 참 좋군요”라고 말하며 진상 자료를 받아 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그녀들 마음속에 오래 남아, 단순히 진상을 주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맺음말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진상을 말하는 일은 겉으로 보이는 인간의 표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사부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부님께서 인연 있는 중생을 이끄시고, 우리의 정념을 가지해 주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문제와 위험을 해결하도록 도와시고, 항상 제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저는 깊이 체험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진상을 말하고 자료를 나누자마자 경찰차가 지나가는 장면을 보았지만, 몇 초 차이로 이미 할 일을 다 마쳤고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신기함과 동시에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만약 사부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이런 사악한 박해 환경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확고히 믿습니다. 자신을 잘 수련하고, 진상을 올바르게 전하며, 더 많은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것이 제가 변함없이 지켜온 신념입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정법수련을 명석하게 인식해 신(神)의 면모를 드러내자

글/ 중국 산둥성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법이 곧 끝나게 될 마지막 시각에, 전국 각지에서 수련생들이 끊임없이 납치당하고, 불법적으로 판결받고, 경제적 박해를 당하며, 또한 수련생들이 끊임없이 병엽 가상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보면서 저는 매우 가슴 아프고 초조함을 느낍니다.

제가 걸어온 수련 길을 돌아보고, 제가 사는 지역 수련생들 일부에게서 나타난 문제를 보면서, 저는 주로 저의 층차에서 정법수련에 대한 얕은 인식을 이야기하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